2007 희망이야기

ANNUAL REPORT 2007

The Hope Institute

HOPE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2007 희망이야기

ANNUAL REPORT 2007_The Hope Institute

Contents

HOPE 365	2
인사말	4
여는말	6
나누는 말	8
걸어온 길	10
사회창안센터	15
뿌리센터	21
희망아카데미	37
공공문화센터	43
대안센터	51
지혜센터	63
소기업발전소	69
기획실	73
웹미디어	79
희망인물 5人	84
인턴 활동	90
함께하는 사람들	92
간행물 목록	96

희망제작소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상상력 넘치는 독립 민간연구소입니다.
경직된 이론, 탁상공론의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의 경험과 지혜를 정책으로 엮어내는
살아있는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Hope 365

희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희망을 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희망을 의심하는 사람...
희망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이 살아 숨쉬는 건 아닐까.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밝은 미래, 희망제작소의 강렬한 희망이다.

희망의 씨앗을 품는다면 미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당시 "2년쯤 해보면 이게 되는 실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고삐를 바짝 당겼는데, 훌쩍 2년이 다 지난 지금 솔직히 난감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는데 이제 실험은 끝났다고,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긴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선지 "왜 그리 바쁜데…, 그래 가지고 어디 제대로 된 희망을 만들 수 있겠어?"라는 주변의 힐책(?)을 들어도 답변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벌였고, 성과도 제법 거두었습니다. 외형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짐짓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것 같았던 유능한 인재들이 최근 희망제작소 문을 자주 두드립니다. 이건 분명 희망의 조짐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곳간은 아직 허전합니다. '사람과 돈'만을 기준으로 단순화해 보면 '사람은 모이는데 돈은 아직 꼬이지 않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희망제작소 3년차를 맞이하는 심경은 그래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다짐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로 계속 정진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온갖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싱크탱크입니다. 정부나 기업의 자금출연 없이 설립된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이며,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으로 연구와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21세기 신(新)실학운동의 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때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런 희망을 품고 과감한 도전정신과 사회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 2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덕에, 이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희망제작소에 대해 관심과 신뢰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견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빚어내는 절망과 갈등, 분노를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어" 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정부 출연 국책연구소나 대기업 출연 기업연구소들에 비해 재정이 너

희망제작소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후원회원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 기부도 중요합니다. 수시로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아이디어나 의견을 남겨주시고, 희망제작소 세미나실에서 연중무휴로 진행될 '희망모울'에 자주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봄을 맞이해야 할 이때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가진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민주주의나 남북관계가 퇴보하지 않을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지나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다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눈물과 한숨은 줄여나가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겸손하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가슴 속에 품는다면, 아름다운 미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박 원 순 상임이사

희망,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깃발

덩치만 커진 희망제작소

2008년 3월이면 희망제작소가 태어난 지 두 돌을 맞는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정신없이 벌였다. 일이 일을 낳았다. 우리가 보기에 아직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배하는 영역과 주제가 적지 않았다. 하루빨리 그 어두움을 걷어내고 희망의 빛을 쐬여 보고자 안달과 초조감으로 지난 2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한 층으로 시작했던 사무실이 어느 샌가 다섯 층으로 늘어났고, 조만간 10층 건물 전체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업이 늘어나니 돈의 쓰임새도 커졌다. 이제 이름만이 아니라 규모 때문에도 헉헉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팀워크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못했고 사업의 일정한 패턴과 양식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했다. 시행착오는 어느 조직에나, 어떤 경우에도 따르는 법인가 보다. 지나고 보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이 적지 않다. 지식인들이 희망제작소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희망제작소를 아는 사람은 많다고 할 수 없다. 아니, 이런 외형적인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었던 목표와 비전은 스스로 판단해 봐도 아직 꿈으로만 머물러 있다.

안국동을 지나는 시민들이여, 희망제작소를 보시라!

우리가 물론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함께 일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몸이 망가질 정도로 분투의 세월을 보냈다. 수많은 나날을 불면과 철야로 지새우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시도하느라 동분서주했다. 한밤중에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가는 서울시민들이여! 동일빌딩을 보시라. 그리고 어느 층에 불이 꺼졌는가를 확인하시라.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실천하도록 하는 곳이다. 2천여 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쌓였고, 그 가운데 20 ~ 30개가 실현됐다. 또 노원구청 공무원들과 더불어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자치부와는 지역홍보센터를 만들어 지역의 모든 정보를 원스톱쇼핑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작년의 조례연구소와 자치재정연구소에 이어 작년에는 농촌희망본부가 탄생하여 다양한 세미나와 도농교류 연구가 이루어졌다. 간판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문화센터는 간판상 제정, 간판학교 개최, 거리미관 용역사업 등 우리사회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어디 그뿐인가.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개척하도록 알선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열어 한국사회 시니어

나는 늘 모든 노고와 실패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2008년, 희망제작소는 '희망' 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선물할 것이다

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켰고,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리더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희망아카데미는 한국판 마츠시다정경숙의 기초를 닦았다. 충남도와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충남의 지방행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곧 안산시, 완주군과도 파트너십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런 성과를 나열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간다

사실 희망제작소가 가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이론연구에 몰두하는 통상의 싱크탱크와많이 다르고,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하는 시민단체와도 많이 다르다. 조사와 연구는 하지만 실증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소들과 차별성이 있고, 포지티브한 대안을 만들고 정부 · 기업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희망제작소는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소홀한 영역을 찾아서,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보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디 쉬운가.

이제 두 돌을 맞는 신생 조직인 희망제작소로서는 이 모든 것이 버거운 일이다. '과거는 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는 말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과거를 지우려 하였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우리가 맞고자 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다. 아무리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경험들을 쌓았고, 그 시련의 계절 속에서 우리는 팀워크를 다지고 일체성을 확보하였다.

나는 늘 모든 노고와 실패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런 바탕 위에서 2008년 한해는 더욱 우리의 꿈을 펼치고, 이미 펼친 것들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08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에 '희망' 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선물하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심기일전해 뛸 것이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의 산실

희망제작소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시민참여형 민간 싱크탱크이다. 우리 사회의 온갖 의제들(agenda)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이며, 연구와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21세기 신(新)실학운동의 산실이다. 희망제작소는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고 믿고 있다. 꿈은 현실로, 미래는 현재로, 문제는 대안으로 바꾸는 한국형 싱크 탱크를 꿈꾸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실험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생활과 제도를 바꾸는 '사회창안센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 모델과 공익적인 삶의 가치를 찾는 '대안센터', 공원 · 도시공간 기획과 간판문화 등 공공디자인을 연구하는 '공공문화센터',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역만들기를 통해 지역을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세워 가는 '뿌리센터',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고 이끌어 갈 우리 시대 공공 리더들의 성장학교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컨설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모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하여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있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이사 18명과 감사 2명이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장은 김창국 변호사(전 변호사협회장)이고, 명예임원인 고문으로 백낙청 선생 등 9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박경호 전 법무사협회 회장, 최상용 전 고려대 교수가 상임고문으로 연구원들을 이끌어주고 있다.

연구 인력은 전임 연구(위)원, 전문위원, 객원연구(위)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임 연구(위)원들은 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고자 하는 패기와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다. 연구원 선발의 가장 큰 기준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변화에 대한 열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근하는 연구(위)원들뿐 아니라 자문위원, 인턴, 후원회원 등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꿈 공장'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열정을 보태주고 있다. 또한 신경망처럼 촘촘히 연결된 지역과 해외 네트워크도 희망제작소의 소중한 자산이다.

희망제작소가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시대의 나침반이 되고, 희망의 깃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 희망의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 씨앗이 싹 터 우람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풍부한 물과 햇볕,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더 많은 인재와 더 많은 네트워크, 더 많은 도전이 절실하다. 우호적인 관심과 성원에서부터 재정후원과 아이디어 및 재능기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소나 대기업 출연 연구소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민간 싱크탱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작은 정성이 필요하다. 재정후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희망제작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내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의 '후원' 메뉴를 클릭해 약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해 후원해도 좋고, 매월(또는 매분기) CMS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정기후원을 해주면 더욱 좋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특정 연구프로젝트에 공감이 갈 경우 후원할 수도 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모든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기획과 연구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및 재능후원도 중요하다.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아이디어나 의견을 남기고, 희망제작소 세미나실에서 연중무휴로 진행될 '희망모울'에 직접 참석해 견해를 밝히면 더욱 좋다. 또 관련 연구원들과 협의해 비상임연구(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연구과정에 함께하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맡아주면 더욱 고마울 것이다.

희망제작소의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희망제작소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적 자산이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는 희망제작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애정,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

The Story of Hope Institute 2007

1월

01.03 시무식
01.05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 선언 SBS · 행정자치부 · 희망제작소 공동협약 체결
01.05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방송 캠페인
01.10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돌입
01.11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01.24 자치재정연구소 창립총회
01.30 간판문화연구소 창립
01.31 지방의원학교 개최 (1박2일)
01.31 2006 사회창안 아이디어 총 결산 시상식

2월

02.05 해피시니어 자문위원 위촉식
02.14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정식 오픈
02.28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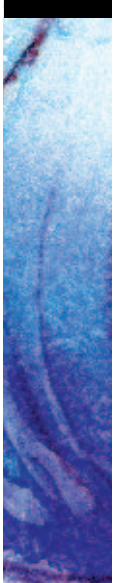
03.01 금강산 워크숍 (2박3일)
03.08 KBS 시청자칼럼 ·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방송 시작
03.14 홍익대학교 · 아름지기 · 희망제작소 공동진행 '공공디자인 콜로퀴움' 시작
03.18 지하철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마감
03.21 제1회 조례연구소 월례포럼 개최
03.24 재난관리연구소 제1회 준비위원회 개최
03.27 희망제작소 창립 1주년 기념 'Visiting Day'
03.28 1000번째 프러포즈 시상 및 사회창안상 시상식 및 창립 기념 세미나

4월

04.10 희망제작소 · 프레시안 공동기획 '박원순의 희망탐사' 연재 시작
04.11 재난관리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04.20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04.26 자치재정연구소 '국가재정' 토론회 개최
04.26 조례연구소 2차 월례포럼

5월

05.01 '희망순천 2020' 마인드교육 시작
05.08 한국일보 · 희망제작소 · 행정자치부 '국민제안 민 · 관 공동 프로젝트' 협약
05.14 희망제작소 · 충청남도 '포괄적인 협력과 컨설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05.15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행자부 공동 '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포럼
05.17 제1회 자치재정월례포럼 개최
05.25 일본 마을만들기 관련 뿌리총서(1~5권)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



6월

06.04 소기업발전소 창립 준비를 위한 1차 운영위원회 개최
06.05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호민관클럽) 결성식
06.07 자치재정 월례포럼
06.19 제1기 간판디자인학교 개최
06.30 일본희망제작소 창립식 개최

7월

07.09 소기업발전소 창립식
07.09 '제1기 해피리포터 양성 워크숍' 개최
07.10 강원도 정선군 지역리더 아카데미 참가자들 일본 연수
07.13 '우리시대 희망찾기' 제1권〈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출간, 저자와의 대화
07.19 농촌희망본부 창립, 기념 세미나

8월

08.01 재난관리연구소 홈페이지 오픈
08.05 희망제작소 '꿈의대화' 〈팜&파머 스토리〉 아름다운 전시회 후원
08.24 좋은간판상 시민 취재단 간판별동대 발대식
08.24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 선정 및 홍보
08.28 전국 NPO리더들을 위한 제1차 NPO워크숍

9월

09.10 제1기 행복설계 아카데미 개최(10월 12일 수료식)
09.12 (주)동훈 기증 '달리는 희망버스' 발진식
09.12 공공리더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공공디자인학교 출범
09.18 노원구 공무원들의 우수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포럼 개최
09.21 '지역희망찾기' 연구공모 사업 시리즈(8권) 발간 시작

10월

10.08 지식관리시스템(KMS) 1차 오픈
10.19 농촌희망본부 '농촌이주 도시민과 지역주민하나되기, 화합과 상생의 길' 학술세미나
10.25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 농촌의 미래' 연속 강좌 시작
10.27 좋은간판상 · 간판별동대 '9월의 간판' 선정

11월

11.02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연속 강좌 시작
11.05 사회창안센터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라' 이벤트 시작
11.08 재난관리연구소 국제 학술회의 '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재해구호 거버넌스와 재난관리 협력 체계' 개최
11.21 행자부 · 희망제작소 공동 지역홍보센터 개관
11.28 소기업발전소 '사회적 기업과 CSR 2.0 개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CSR 혁신 전략 국제 포럼' 개최
11.29 해피시니어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심포지엄

12월

12.10 2007 최고의 아이디어 선정
12.20 제1기 해피리포터 수료식
12.20 사회창안센터 송년의 밤
12.2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개최

연구 방향 & 이념

독립 INDEPENDENCE

희망제작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정부연구소와 기업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합니다. 기존의 연구소들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소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때, 희망제작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오직 시민에 의한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참여 PARTICIPATION

희망제작소는 누구나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열린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격식과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인터넷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학력, 직업, 지역을 뛰어넘어 소통의 벽을 없애고, 소수의 정책가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안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실용 PRACTICALITY

희망제작소는 거시 담론보다 작지만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추상적, 낭비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방법론을 지향합니다. 생활 속의 경험에 기초한 지혜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화되는 것, 희망제작소는 이것을 '연구'라고 규정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바로 이런 생활 속의 실천적인 연구소를 추구합니다.

대안 ALTERNATIVES

희망제작소는 긍정적 비판, 대안제시로 무게중심을 옮기려 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인간 중심, 생태 지향, 문화 중심 등의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지상주의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평화, 생태, 문화 등 다양한 대안이 요구됩니다.

지역 REGION

희망제작소는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지역사회가 붕괴하면 중심도 흔들립니다. 희망제작소는 무너져가는 지역을 살리고, 희망이 샘솟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열중할 것입니다.

현장 FIELD-BASED

희망제작소는 현장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언론을 통해서만 세상을 읽고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대안을 좇지 않습니다.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진리의 땅을 경작하려고 합니다.

종합 INTEGRATION

희망제작소는 종합연구소를 지향합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은 별도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연결되어 함께 분석하고 종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연구 대상을 정치나 경제 같은 한 영역에 편중하지 않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
이사회
이사장
상임이사
고문
일상에서 대안을 창조하는
대안센터
시민이 창조하는 문화
공공문화센터
전세계의 지식을 하나로
지혜센터
기획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지역을 중심으로 세우는
뿌리센터
사무국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소기업발전소
공공리더들의 성장학교
희망아카데미
시민의 아이디어로 바꾸는 세상
사회창안센터
웹미디어
콘텐츠팀
연구소장
부소장단
시민단체/정부기관
연구소/기업
연구자문 위원회
연구기획 위원회

활동 평가

사회창안센터
뿌리센터
희망아카데미
공공문화센터
대안센터
지혜센터
소기업발전소
기획실
웹미디어

Social Invention Center
사회창안센터

> > > 전구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발명이지만,
이 전구를 이용해 길을 밝혀 안전한 밤길을 만드는 것은 '사회창안'입니다.
사회창안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고,
뻘것도 아닌 생각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변화전략입니다.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공익적 제안을 모아 현실화하는 매개 역학을 하는 곳이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이를 조사하고 숙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사회창안센터의 주요 연구 내용이자 활동 방향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창안센터의 소명이다. 또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절망부터 치유하라'는 명제 하에 시민의 고충을 만드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안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시민 아이디어

● 아이디어 접수현황 (2007. 1. 1 ~ 2008. 1. 27)

- **총 아이디어:** 씨앗, 새싹, 나무, 열매 아이디어 총합계
- **씨앗 아이디어:** 처음 등록된 모든 아이디어는 씨앗 아이디어
  씨앗 아이디어는 등록된 아이디어가 머물게 되는 첫 단계
- **새싹 아이디어:** 씨앗 아이디어를 평가해 으뜸, 버금, 디딤 아이디어로 분류
  새싹 아이디어는 시민평가단이 조사
- **나무 아이디어:** 시민평가단의 1차 조사가 완료된 아이디어가 나무 아이디어
  시민평가단의 조사후 연구원이 조사
- **열매 아이디어:** 조사와 연구, 제안을 통해 현실화의 열매를 맺은 아이디어
  열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의 최종 단계

● 우수 아이디어 시상식

[매달 으뜸 · 버금 사회창안상 시상]

1월 으뜸 | 새 지폐에 시각장애인용 인식표시
버금 | '하대조'의 법률적 용어는 일반어 내지 경어로 고쳐야 한다

2월 으뜸 | 쿠폰제 장난감 교환소 설치
버금 | 아이스크림은 10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3월 으뜸 |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안
버금 | 현재 재활용 쓰레기표기방식에 대한 개선

4월 으뜸 | 사회적 밴드를 키워보자
버금 | 효과적인 절전을 위한 그린(green) 배선
5월 으뜸 | 65세 이상 주한외국인 무임승차권
버금 | 지렁이가 꿈틀거려 깨끗해지는 아파트 쓰레기통
6월 으뜸 | 무해용기를 사용하여 음식 만들기
버금 | 여권 신청은 안방에서, 찾는 건 동사무소
버금 | 빈병 재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7월 으뜸 | 차보다 사람이 절대 먼저! 보행권 입법화하자
버금 | 없음
8월 으뜸 | 비가스 장애인차는 지원혜택이 없다
버금 | 없음
9월 으뜸 | 뚜벅이 가족을 위한 주차장 없는 주택단지 개발
버금 | 재산세 부과시기 조정으로 국민편의 도모하자
버금 | 버스 맨 뒷좌석 보호대설치 의무화
10월 으뜸 | 위원회 구성의 민주화
버금 | 고속도로 소통 원활 정도 지수로 표시
버금 | 흑백 전봇대를 칼라 전봇대로

[연말 베스트 아이디어 시상] (2007. 12. 21)

- 쿠폰제 장난감 교환소 설치 (제안자, 레지나)
- 공중화장실 세면대 가방걸이 (제안자, 정선영)
- 시각장애인 이동에 방해되는 볼라드 (제안자, 참여시민)

››› 공동캠페인

● **희망제작소 – 한국일보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2007년 3월 12일(화)부터 총 38회 기사 게재

● **희망제작소 – KBS 공동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2007년 3월 8일(금)부터 총 25회 방송

● **희망제작소 – 한겨레신문 공동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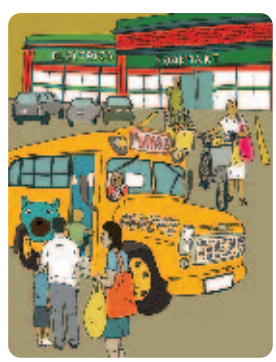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보행권을 되찾자"

2007년 9월 21일(금)부터 총 11회 기사 게재

● **희망제작소 – 시민사회신문 공동기획**

"세상을 바꾸는 시민창안공작소"

2007년 9월 10일(월)부터 총 18회 기사 게재



››› 와글와글포럼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키우는 아이디어의 확장과 대안 모색의 과정으로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펼쳐지는 토론광장

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2차 포럼 [2007년 5월 15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행자부, 건교부 등 참여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 음성 유도기 문제 [2007년 6월 19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시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 건교부 등 참여
박원순의 국내외 지하철 탐방기 [2007년 7월 4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행자부, 건교부 등 참여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2007년 9월 18일]	노원구청장 및 공무원,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자부, 서울시, 국회의원 등 참여
지방행정 관련한 시민고충 해결방안 [2007년 11월 14일]	노원구청장 및 공무원, 국회의원, 국민고충처리위, 참여연대, 여의도통신, 제안시민 등 참여

››› 출판 사업

●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

창립 이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모인 아이디어 가운데 반짝이는 아이디어 90여 개를 모아 추려 실은 책으로 지난 2007년 10월 31일 발간됐다. 사회창안센터가 캠페인을 벌여 결실을 맺은 '초기 임신부를 배려하자'는 아이디어부터 '결식아동 위해 방학 중 학교 도서관과 급식시설 연계운영', '쇼핑카트에 계산기 부착'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가득 실려 있다.

●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이 책은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낸 참신한 행정 개선 아이디어 73개와 각각의 아이디어들에 대한 시민들의 코멘트를 담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의 두 번째 책이다. 공무원들 스스로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 아이디어 공론화 및 현실화 현황

● 유통기한 표기 방법 개선

- 유통기한 표시 글씨가 너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의 아이디어
- 여러 차례의 포럼과 공청회, 정책제안으로 식약청이 식품고시 개정함

[결과]

▷ 유통기한 표시 글씨 크기가 커지고,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병기

▷ 유통기한 표기 예외 품목이었던 아이스크림, 맥주 등에도 제조년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통기한 표기

● 입출금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사전 공지

- 입출금 자동화기기 이용시 출금, 이체 등을 결정하기 전에 수수료를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이디어
- 시중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 정책 제안

[결과]

▷ 금융감독원, 2008년부터 모든 시중 은행의 ATM 이용시 수수료 사전 공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

● 시각장애인 고충에 관한 아이디어

- 유통기한, 전자제품 사용설명서, 약품 설명서, 터치스크린식 ATM, 주정차방지 돌기둥 등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아이디어

[결과]

▷ 점자 표기된 ATM기 도입 예정

▷ 식약청의 개정 식품고시에 점자 유통기한 표기 규정 마련해 고충위 전달

▷ 고충위 볼라드 전수 조사 실시 및 건교부와 협의중

● 현금영수증 모든 거래에 발급

• 5천원 이상에만 발급되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로 소급 발행, 누적 발행 등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접수

• 조사 결과 5천원이라는 발급 기준은 다소 임의적인 기준이었음을 밝힘

[결과]

▷ 재정경제부, 2008년 7월부터 모든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하기로 발표

● 성인여성의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

• 생리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무려 10일이 되는데도, 이용요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아이디어

[결과]

▷ 서울 송파구, 양천구, 관악구, 광진구, 울산 동구, 대전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 익산시 등 지자체 조례 개정 움직임

▷ 서울시도 조례 개정 추진중

●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다른 경우

•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다른 사람이 무려 11만 명에 달함. 그러나 공무원의 기재 착오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으며, 호적에 맞춰 주민등록을 정정할 경우 모든 개인 기록을 정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개인 부담

[결과]

▷ 주민등록에 맞춰 호적을 정정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호적에 맞춰 주민등록을 정정할 경우 공무원의 기재 착오로 인정하여 행정기관 직권으로 수정.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

● 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프로젝트 : 지하철 낮은 손잡이, 배려석 등

• 키 작은 성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존의 지하철 손잡이를 낮추자는 아이디어와 노약자 이외에 초기 임산부나 일시적 장애인 등 다수의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 배려석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

[결과]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지하철 낮은 손잡이, 배려석 등 설치

▷ 서울시, 지하철 공공디자인 대 개선 돌입

The Roots Center

뿌리센터

| 조례연구소 | 일본희망제작소 | 농촌희망본부 | 차치재정연구소 | 주민참여클리닉 | 지역홍보센터 | 지역연구공모 |

뿌리가 깊고 튼실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기운차게 뻗어나갑니다.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 뭇생명을 품고 기릅니다.
'지역의 중심에서 세상을 외치다!' 뿌리센터의 모토입니다.

조례연구소

"로마는 세계를 두 번 통치했다 영토로 한번, 문명으로 한번. 로마법이 핵심이 되어 지방별 매뉴얼이 모든 국가에 맞게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도 실제적 법치국가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드는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생활 구석구석에서 작은 문제들이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그동안 중요하지만 소외되어 온,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어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를 생활법으로서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조례실천운동을 실행하겠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다."

앞의 말들은 2006년 조례연구소 창립식에서 다졌던 초발심이다. 조례연구소는 일상생활의 작은 문제들을 조례로 풀어보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조례가 주민들에게 가까운 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활동

2007년 조례연구소의 활동은 주로 교육과 토론회, 출판, 각종 자문이었다. 내적으로는 조례뱅크의 구축을 위해 일본과 미국의 각종 조례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조례교육

상반기에는 희망제작소 의원학교에서 '삶을 바꾸는 조례의 힘' 이란 강의와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분투기를 듣는 과정을 마련하였다. 조례가 단순히 상위법의 전달매개가 아닌, 조례의 정신이 상위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조례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와 고민을 나눈 시간이었다. 하반기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역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조례입법' 연수에 참가해 지역언론 기자들의 고민과 열정을 알 수 있었다.

● 조례토론회

3월부터 시작한 조례월례포럼은 12월까지 총 7회가 진행되었다. 우선 3월 포럼은 '조례입법권의 헌법상 쟁점과 문제해소 방안' 을 주제로 현행 헌법과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고, 이후 개별 조례에 관한 포럼을 열었다.

4월에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 방법' 이라는 부제로 경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의 경관법과 경관조례 제정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국내 경관법의 추진과정, 경관조례의 필요성, 서울시의 경관조례 현황, 경관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5월에는 추모문화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례로 풀어보았고, 6월에는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공

동으로 조례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8월에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제도 및 현황, 그리고 지방세 감면조례의 현실과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10월에는 속초 주민자치센터박람회장에서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를 열어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명칭 개정에 대한 논란을 넘어 향후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그에 따른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이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낼 수 있다면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광주시 북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마을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아울러 일본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사업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특징을 살려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 출판 사업

국내에 조례 관련 도서가 부족하기에 우리보다 조례가 발달한 일본의 저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자치기본조례를 만들다〉, 〈시민참여조례를 만들자〉, 〈조례만들기 입문〉,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드는 방법〉, 〈아이를 칭찬하는 조례〉 등 총 5권의 저서가 번역되었고, 2008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조례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 전망

조례연구소는 탁상공론,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연구 성과가 시민들의 삶에 밀착하지 못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조례운동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만한 '좋은 조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조례연구소는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연구와 아울러 1단체 1조례 지키기, 시민단체와 지역기자들이 뽑은 좋은 조례상 제정, 다양한 모범조례 활성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조례토론회

2008년에도 월례포럼을 지속할 예정이다. 인권조례, 정보공개조례, 환경조례, 경관조례 등 다양한 내용의 토론으로 쟁점 및 과제를 정리하여 좀 더 생산적인 토론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조례가 지방자치의 확대 및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확대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 속으로 찾아가려 한다.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권 확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과 조례 독서모임, 저자강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출판사업

조례연구소 1년의 연구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조례 현황조사와 대안제시를 통해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짚어내고, 월례포럼 자료집, 개별 조례 사례집, 일본조례총서, 조례 판례 평석집 등 다양한 자료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조례교육

조례연구소는 지방의회, 공무원,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례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여 주민들 스스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연구소가 될 것이다.

● 조례뱅크의 내실화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여 국내외 조례 소개뿐만 아니라 조례 칼럼, 베스트 조례 소개, 캠페인, 토론회 동영상 제공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주민참여적인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례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좋은 조례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조례연구소는 현장중심의 연구를 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일본희망제작소

일본희망제작소는 2007년 6월 30일,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말 일본 사회에 폭넓은 인맥과 경험을 가진 깃카와 준코 사무국장을 영입하고, 강내영 연구원이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설립작업에 들어갔고, 2007년 초 일본 마을만들기운동의 개척자인 하야시 야스요시(오른쪽 맨 위 사진)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마침내 일본희망제작소 창립이라는 결실을 본 것이다. 설립 과정에는 일본의 시민사회 인사와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적 연구와 실천에 앞장서고 있고, 한일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의 첫 번째 해외 네트워크 조직으로 일본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일 국제세미나와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간 지역과 지역, 현장과 현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일본희망제작소는 앞으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한일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 주요 활동

6월 30일
일본희망제작소 창립기념세미나
'지금이야말로 '희망력'을 – 지역에, 사회에, 미래에!'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한일 협동 가능성의 모색
메이지대 리버티타워 2층

7월 10일
연수단체 : 강원도 정선군 지역리더 연수단 –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재생
테마 : 탄광의 마을로부터 생각한다 – 오오무타와 정선군의 현황과 과제
연수지 : 큐슈지역 오오무타시, 아라오시, 유후인 일대

7월 21일
연수단체 :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구청장과 직원
테마 : 추진업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일본선진도시 견학
연수지 :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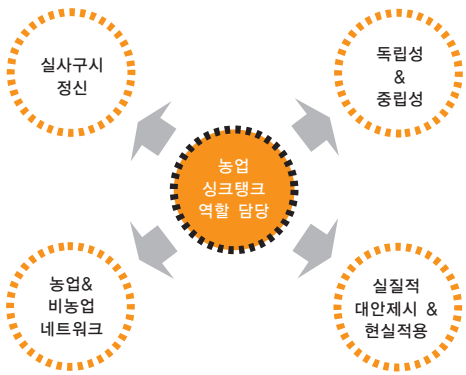
7월 23일
연수단체 : 자치안성 신문사
테마 : '강의 날' 행사 취재
연수지 : 도쿄도 아라가와구, 세타가야구, 타마가와,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10월 2일
연수단체 :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테마 :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 2007년 H.C.R 박람회 연수기획
연수지 : 도쿄도, 니시도쿄 일대

10월 10일
연수단체 : 일본희망제작소
테마 : 한국의 마을만들기 현황 및 한국 마을만들기 연수 사업의 전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한국도시커뮤니티(관악주민연대) 방문
연수지 : 서울시 관악구, 강원도 정선군, 속초시

농촌희망본부

2007년 7월 19일 창립한 희망제작소 부설 농촌희망본부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전문가가 함께 모여 오늘날 농업의 위기를 고민하면서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 싱크탱크이다. 실사구시의 정신 아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농촌희망본부의 사업은 크게 중점 추진사업, 연구 및 세미나, 기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 중점추진 사업

- 귀향귀촌 지원 사업 : 귀향귀촌도움센터 설립추진, 교류거주 촉진 등을 통해 귀향귀촌 붐 조성
- 도농교류 촉진 사업 :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 농부시장, 안테나숍, 지자체간 종합적 교류 패키지 등에 대한 연구 및 촉진 사업
- 소규모 농업관련기업 활성화 사업

● 연구 및 세미나

- 농촌희망 기획강좌 Ⅰ :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 농촌의 미래
- 농촌희망 기획강좌 Ⅱ :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 우리술 진흥포럼, 귀농인 포럼 진행예정
- 한국형 도농교류 모델 만들기 연구 진행
- 국제세미나 및 해외 스터디 투어

• 농촌희망 기획강좌 I _ 비농업인이 바라본 한국 농업 · 농촌의 미래

강연일자	강연자 및 강연제목
2007. 10. 25(목)	푸드아티스트 오정미가 만들어보는 농촌희망 레시피
11. 22(목)	한바람 임옥상 화백이 그려보는 농촌과 도시의 소통, 한국농촌의 미래
12. 20(목)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가 교육으로 풀어보는 농촌의 새로운 청사진
2008. 1. 17(목)	다산연구가 박석무가 제시하는 농업의 신실학운동
2. 21(목)	쌈지 천호균 사장이 발칙하게 상상해보는 농업미래
3. 20(목)	이윤기 해외한민족연구소장이 전망하는 한국 농업의 국제화 가능성
4. 17(목)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생각해보는 한국농업의 비전
5. 15(목)	신동환 KBS플러스 사장이 생각하는 한국 농업을 위한 방송과 언론의 역할
6. 19(목)	간디학교 양희규 교장이 생각해보는 농업의 대안적 미래
7. 16(목)	정진승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생각하는 농업과 환경의 아름다운 동행

※ 시간 : 14:00~17:00 / 장소 :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2층)

• 농촌희망 기획강좌 II _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강연일자	강연자 및 강연제목
2007. 11. 2(금)	항암기능성 배추종자로 세계최고의 종자회사를 꿈꾼다 (제일종묘농산 박동복 대표)
12. 6(목)	전세계 농민에게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를 판다(농민발명왕 이해극 회장)
2008. 1. 10(목)	토종바이오농업의 기초를 다진다(토종꿀박사 김대립 대표)
2. 14(목)	오리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홍성 문당리 주형로 회장)
3. 6(목)	경관농업으로 도농교류의 비전을 심는다 (남해 다랭이 마을 김주성 이장)
4. 3(목)	도시민들에게 제2의 고향을 제공한다 (화천 토고미 마을 한상열 대표)
5. 1(목)	대한민국 최고의 배를 생산한다 (화성 현명농장 이윤현 대표)
6. 5(목)	세계화의 파고를 질 좋은 한국 포도로 넘는다 (한국포도회 김성순 명예회장)
7. 3(목)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한다 (도드람 진길부 조합장)
8. 7(목)	황토집과 자연학교로 도시에 생명을 전해준다 (장성 한마음공동체 남상도 목사)

※ 시간 : 14:00~17:00 / 장소 :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2층)

● 기타 사업

- 언론과 함께 만드는 농업희망
- 농업을 살리는 좋은 아이디어 함께 나누기
- 농산업 기금 조성
- 농업 연구모임

자치재정연구소

자치재정연구소는 주민이 진정한 재정의 주인이 되는 자치재정을 이루기 위해 2007년 1월 창립하였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외부자본에 의존한 발전을 꾀할 뿐 정작 지역주민의 고용을 늘리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빈곤한 재원과 넘치는 지역이권 배분 속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자치재정연구소를 창립하였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정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 주요 사업

자치재정연구소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언론사와 공동기획취재

지역의 재정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현장성 있게 공론화할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의 역할은 자치재정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자치재정연구소는 지역 언론사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 조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한다.

● 월례포럼

매월 지역재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포럼 이후에는 연구보고서 등을 출판해 이슈를 확산시켜 나가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 자치재정아카데미

자치재정아카데미는 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회의원에게는 감사 및 예산심사기법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재정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더욱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되도록 한다.

● 출판 사업

2007년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에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첨부해 에세이 형태의 시리즈로 엮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변화를 다룬 백서 시리즈를 출판할 예정이다. 이러한 출판 작업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람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성과

자치재정연구소는 재정 분야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진 주민,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정의 분권이 아닌 재정의 분권을 위해 지난 1년 간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 정부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주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지 못한 채 중앙의 지원과 외부 자금을 통한 '보여주기식' 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지역의 재정' 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 이에 자치재정연구소는 월례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의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신문 기자들과 함께 해외사례를 기획취재하였다. 또 자치재정 아카데미를 통해 기초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진행 과정

자치재정연구소는 2월 28일, '이제는 자치재정이다' 라는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5월 17일, 제1회 월례포럼을 개최한 이래 2008년 1월 17일 까지 총 9회의 월례포럼을 진행하였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의 미로, 출구는 없는가 – 지방재정학자 이재은의 고민과 대안' 이란 제목으로 6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다. 8월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기자단과 함께 기획취재단을 구성하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을 주제로 영국의 시민단체(TESCOPOLY)와 대형마트(TESCO), 민간 · 정부 협력기관(TCM, ATCM), 재래시장 등을 취재하였고, 9월에는 '지역예산해부' 를 주제로 미국의 예산감시단체와 캘리포니아의 주 재무부와 공공정책 연구소 등을 취재하였다. 기획취재를 전후로 각 주제마다 3~4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두달여 준비 끝에 10여일 간의 취재를 마쳤다.

주민참여클리닉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클리닉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이론과 기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넓고 확대된 의미의 주민참여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민주주의는 주민참여로 점점 성숙해지며, 주민이 중앙과 지역의 주인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주민참여클리닉은 주민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주민이 참여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조사 사업

국내외 주민참여 사례와 주민참여기법을 수집하는 기초자료 구축 사업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연구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국내외 주민참여 사례, 기법수집, 정리분석
- 주민참여뱅크 구축
- 전국 주민참여지형도(MAP) 구축

● 연구 사업

거시적, 추상적 담론을 지양하고 실사구시에 입각한 생활 밀착형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넓고 확대된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주민참여포럼시리즈/주민참여총서시리즈
- 주민참여 연구공모사업/제도 · 법률 개선사업
- 주민참여기법 · 모델 개발

● 컨설팅 사업

중앙의 관점과 이론으로는 지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역의 관점과 입장에서 제안을 할 때 비로소 유용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참여클리닉은 다양한 차원,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주민참여활성화 및 공동체활성화 컨설팅/지역만들기 컨설팅
- 주민참여사업 및 운영 컨설팅
- 갈등 상담 및 조정 컨설팅

● 교육 사업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에 기초한 민주시민,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한다. 이론위주의 학습보다는 현장지향형, 사례 중심,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사업/주민리더교육사업
-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교육 사업
- 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중재자 양성 사업

››› 성과

● 연구 용역

- 2007년 11월 충청남도 살기좋은아파트 선정 평가지표 개발
- 2007년 12월 충청남도 도정주민참여 ON-OFF 시스템 개발
- 2008년 01월 장흥우산슬로우월드 마스터플랜수립(공동체활성화 분야)

● 컨설팅

- 2007년 05월 충청남도 컨설팅(주민참여분야)
- 2007년 08월 화성시 컨설팅(공동체활성화분야)
- 2008년 01월 영종도 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한 컨설팅(주민참여모델)

● 포럼

- 2007년 10월 한국형지역재단 모델 정립과 정착을 위한 1차 워크숍
- 2007년 12월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를 조명한다
- 2007년 12월 한국의 전자민주주의를 조명한다

지역홍보센터

희망제작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진흥을 중심과제로 삼고 출범한 이래 지역활성화와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진흥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홍보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4월 일본 도쿄를 방문해 찾아간 '일본지역활성화센터'와 '고향정보플라자'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홍보에 그쳐 효과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희망제작소는 일본의 사례처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와 각종 홍보물을 한 곳에 모으고 지역의 특산물까지 골고루 전시한다면 훨씬 더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2006년 행정자치부에 이를 직접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행정자치부가 적극 받아들여 1년여의 논의와 준비 끝에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층에 300평 규모의 지역홍보센터를 2007년 11월 21일 개관하였다. 최초의 제안자인 희망제작소가 공모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선정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지역활성화의 새 장을 열고 있다.

››› 운영 현황

- 지역을 브랜드화하여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 전국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한 곳에서 체험,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 수집 및 운영시스템구축(내, 외국인 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관계구축을 위한 허브 역할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매수익금 극대화
- 기본운영컨셉은 'Fun, Learn and Different'(행사와 이벤트중심의 모두가 즐거운 공간)

희망제작소는 설립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홍보센터는 희망제작소의 이런 지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사업의 구상과 제안을 희망제작소가 발의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수용해 센터를 만들고 다시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이며 운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 전망

지역홍보센터는 희망제작소 최초의 위탁사업이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실천 사례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2008년도 사업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자료특별전 : 매월 수집된 지역 자료들을 테마별로 BEST10 선정
- 지역희망우체국 : 고향을 응원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글, UCC, 제안서를 해당지자체에 전달하고 정책화하는 사업
- 내가 만든 지도 한장 : 방학 중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지도그리기와 색칠하기, 지역과 관련된 퀴즈게임, 영어로 하는 지역퀴즈
- 축제 홍보 한마당 : 전국 지자체별 계절별 축제 홍보 이벤트
- 지역특산물 기획판매전 : 상설매장에서 엄선된 지역특산물을 판매함과 아울러 테마별 상품 기획판매전을 개최해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홍보, 판매

지역희망찾기 연구공모

지역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_ 희망제작소는 2006년 '지역희망찾기연구공모사업'(아래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연구자와 연구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모사업은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연구자문을 맡아 지역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한다. 특히 마을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다. 공모결과 모두 8건의 사례를 채택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정 서적

- 〈송산마을속으로 들어가다〉(문충선 · 정찬용 · 천승룡, 이매진, 2007.9.21)
- 〈이천동 도시의 옛 고향〉(최엄윤, 이매진, 2007.9.21))
- 〈우리시대의 커뮤빌더〉(김기현, 이매진, 2007.9.21)
- 〈연안테제, 연안사회를 조직하라〉(김갑곤, 이매진, 2007.9.21)
-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정보연 · 김수정 · 이순임, 이매진, 2007.9.21)
- 〈순천만, 시민사회 물결치다〉(박두규, 이매진, 2008.1.10)
- 〈5 · 18로 끓여먹는 얼큰한 문화도시〉(류동훈, 이매진, 2008.1.10)
-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 우리 동네 에너지 농부이야기〉(이유진, 이매진, 2008.1.10)

››› 전망

공모사업은 활기 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202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우수한 연구물을 선정하여 매년 출간할 계획이다. 2008년 출판이 예상되는 서적은 15권 이상으로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008년 지역연구공모 일정

내 용	일 시
제출서류 접수완료	3월 14일
심사결과 발표	4월 11일
연구자 교육 및 간담회	4월 16일
1차 연구보고서 제출	7월 11일
1차 워크숍(교육 및 연구과제 보완)	9월 3일
2차 연구보고서 제출	9월 24일
2차 워크숍(교육 및 연구과제 보완)	10월 10일
최종 원고(연구보고서) 제출	10월 24일
출판 기념회 및 세미나	12월 23일

››› 연구자들이 말하는 지역연구공모 사업

● 류동훈 〈5 · 18로 끓여 먹는 얼큰한 문화도시〉

시민운동 실무자로 8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현장속에서 느꼈던 많은 고민과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소망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연구공모를 통해 저같은 평범한 사람도 지역 발전을 위한 책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런 자신감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유한킴벌리와 같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책쓰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정보연**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

좀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겨 학술적 연구의 길을 터 놓았습니다. 지역운동의 특성상 상호 소통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책 출판이 이뤄지면서 한 지역의 성과가 다른 지역 활동의 상상력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형식으로 책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유진**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 우리동네 에너지 농부이야기〉

지역활동가들은 생각도 많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평소에는 신경 쓰지 못하지만 지역연구라는 목표점이 생기면 생각을 정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지역의 대안에 대한 구슬을 한데 엮어놓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다른 연구소에서 나오기 힘든 보고서들입니다. 비용 걱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비록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쓰기 위한 과정, 현장을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충선** 〈송산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마을사람들을 만나러 집으로 들어가는 길, 사람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마을의 역사를 만나러 가는 길, 우리의 삶과 문화가 지속되는 비밀을 발견하는 길이었습니다. 지역연구공모사업을 통해 길을 나설 수 있었고, 삶과 문화의 비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he Hope Academy

희망아카데미

> > > 희망아카데미는 우리시대 공공리더들의 성장학교입니다.
> 지역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실력을 갖춘 공공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 도전과 변화를 이끌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
> 희망아카데미가 그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희망아카데미는 '우리시대 공공리더들의 성장학교'이다. 희망아카데미가 우리시대 공공리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도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의 미래는 참된 지역 일꾼을 필요로 하고, 그 일꾼에게는 신뢰받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리더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현안과 구체적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학습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 주요 활동

● 공무원학교 – 희망순천 2020 마인드 교육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간 순천시 공무원 280여 명이 '희망순천 2020'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얼굴을 맞대었다. 이 교육은 1기부터 7기까지 각 40명으로 구성하여 일방적인 강의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자 중심의 워크숍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생 대부분이 순천에서 20~30년을 살아온 지역전문가이고, 순천시 행정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순천시민으로서 무엇보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비전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2박3일 동안 '순천시민의 미래'와 '순천시 공무원의 미래', 그리고 '순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참가자들은 순천시의 주요핵심과제에 대해 꼼꼼히 뜯어보고 조별로 주어지는 상황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과제의 미래상을 완성해나갔다. 교육기간 내내 집중이 요구되었고, 밤늦게까지 진행된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나이와 직급, 직렬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열과 성을 다했다.

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본 'Sale 순천!' 시간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과 창의성이 잘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순천을 팔기위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순천을 파는 쇼핑호스트가 되었던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순천의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순천시 희망 창조자(Creator)가 되어 있었다.

● '달리는 희망버스' – 공공디자인 학교로 힘차게 발진하다

(주)동훈은 2007년 살아있는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해 희망제작소에 버스를 기증했다. 이 '달리는 희망버스'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디자인의 희망을 싣고 달렸다. 공공디자인학교에는 2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공사에서 공공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서울 · 경기권역, 전라권역, 경상권역 별로 모범사례가 될 만한 공공디자인 현장을 둘러 보았다. 간판과 옥상공원부터 지역주민의 삶을 조직하는 공공건축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공공디자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계기였다.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희망아카데미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그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람들의 삶을 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08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 자치단체장 해외연수 – 일본 커뮤니티비즈니스 현장을 가다

2007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9개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7명이 참가한 일본연수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세계가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꿈은 마을 곳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었다. 도농교류를 확산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현장에는 반드시 뛰어난 리더와 그들을 지원하는 NPO지원조직이 있었다. '도시는 농촌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있고, 농촌은 도시의 경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는 글귀가 실감났다. 이 연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꾸준히 그 사례가 연구되고 집적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리더학교 – 여성단체장을 넘어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다

첫 프로그램은 순천시 여성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학교였다. 이 교육은 여성단체장들이 지역 전체의 비전을 생각하며,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는 자리였다. 충남 홍성 문당리에서 진행된 이 교육은 마을대표 주형로 선생의 강의와 황토찜질방에서의 '생생수다' 로 늦은밤까지 계속됐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제 밤 내가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설쳤다"는 한 참석자의 말처럼 비전을 가진 리더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신나는 숙제를 얻어가는 자리였다.

● 공무원 해외연수 – '빡센여행사' 가동되다

2007년 11월의 자치단체장 해외연수와 12월의 순천시 공무원들의 커뮤니티비즈니스 · 보건 · 복지 · 의료 · 여성테마 연수는 '빡센여행사'의 데뷔전이었다.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연수이니만큼 각오하고 참여했다"는 어느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일정은 고되었지만 매우 알차고 보람찬 연수였다. 자치단체장 해외연수가 끝나자마자 전남 순천시는 관련 공무원 26명을 실제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를 위한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 전망

2007년의 성과와 한계를 발판으로 2008년에도 희망아카데미는 희망사회를 향한 교육의 산실, 희망교육의 1번지가 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갈 전망이다.

● 〈좋은 시장학교〉 신설

-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들이 자질과 덕목, 역량을 키우고, 성공하는 지방정부 CEO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학교 운영
- 해당지역에 대한 4년간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본강좌, 국내외 스터디투어, 캠프 운영

● 희망모울 활성화

- 비영리단체(NPO) 리더,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연속강좌 '박원순의 Social Designer's School'을 시작으로 공공리더의 리더십강좌 개설
- 사회적 현안을 중심으로 긴급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조직하여 일반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 공공디자인학교의 안정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역리더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는 기본과정 운영
- 공공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 구축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과정(공개모집 및 위탁운영)과 해외연수 실시

● 커뮤니티 비즈니스 학교 활성화

- 도농교류와 지역의 자원 활용,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성,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그로그램 운영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과정(공개모집 및 위탁운영)과 해외연수 실시

● 평생교육시설 등록 등 인프라 구축

- 원격교육관련 평생교육 시설등록을 통해 교육전문기관으로 인증 획득
- 학점은행제 연계방안 모색

Center for Public Culture

공공문화센터

| 간판연구소 | 도시공간연구소 | 세계공원연구소 |

> > >

아직도 상상력과 창조적 발상이 예술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는 개인과 사회가 처음부터 하나로 묶여있는 공공영역입니다.
개인의 취미활동에서 예술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조적 에너지가 공공의 장에서 생동하게 만듭니다.

공공문화센터는 개인의 취미 활동에서 예술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조적 에너지들이 공공의 장에서 생동하게 만든다. 상상력과 창조적 발상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창조와 상상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을 횡단해야 하고, 보통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실천들과 만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펼쳐지는 장이 마을이고, 거리이며, 도시이다. 그곳에는 공공의 쉼터가 있고, 강이 흐르고,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과 건물, 시스템이 존재한다. 공공문화센터는 이러한 문화적인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이는 창조적인 사회, 문화적인 삶의 기반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과정의 디자인, 관계의 디자인

지역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재구조화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펼치는 시대는 갔다.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조직의 관계,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 창조적인 사회, 문화적인 도시 만들기

도시에는 창조적인 개인, 창조적인 조직이 많이 있다. 하지만 행정시스템,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관(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러한 창의성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사라져버린다. 공공문화센터는 열린 생각을 가진 정책결정자와 공무원, 미래지향적이며 사람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 지역의 고유성을 활용하는 도시를 설계하도록 연구하고 자문한다.

간판문화연구소

도시의 얼굴, 거리의 예술이 되어야 할 간판. 하지만 우리의 간판은 골칫덩이가 되고 말았다. 복잡하고 현란한 간판이 온통 거리를 지배하고 있다. 간판에게 자리를 내준 거리는 걷기 불쾌하고 어지러운 곳이 되었다. 간판 때문에 이웃과 다투고, 간판을 떼 붙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간판문화연구소가 시민, 행정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 좋은 간판 살리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불법 간판이 없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단속,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는 행정과 간판주의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지만, 거리의 모습은 난삽하기 짝이 없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힘은 강력한 법률과 벌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좋은 간판을 달고 거리를 가꾸려는 마음이다.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간판은 거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간판이 모여 거리의 이미지를 만든다. 거리의 이미지가 공간의 색깔을 결정한다. 간판이 거리이고, 거리가 지역이다. 아름다운 간판 하나도 소중하다. 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아름다운 간판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판문화연구소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문화운동을 제안한다.

● 주민 스스로 가꾸어 가는 간판문화

좋은 간판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끼고 잘 가꾸어 가는 일이다. 내 가게를 알리려는 간판이 옆집의 간판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배려하고 애쓰는 마음이 중요하다. 간판은 네트워크이다.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간판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매개고리이다.

››› 성과

● 2007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

희망제작소 부설 간판문화연구소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민들이 좋아하는 간판이 무엇인지, 어떤 간판이 좋은 간판인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대한민국 좋은간판상 (www.ganpan sang.org)' 을 운영했다. 시민들이 직접 간판사진을 찍어 올리면 네티즌 추천과 시민대표로 구성된 간판별 동대의 심사를 거쳐 '이달의 간판' 을 선정하였다. 9월 5점, 10월 7점, 11월 5점 등 총 17점이 뽑혔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2월 10일(월) '대한민국 좋은간판상 – 올해의 간판' 을 선정하였다. 이 캠페인은 좋은 간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시민들 스스로 아

2007 대한민국 좋은간판상
대상 수상작 서울 삼청동
'푸른 별 귀 큰 여우'

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은 2008년에도 계속된다.

● 제1회 간판디자인학교 간판, 도시의 얼굴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판디자인학교가 2007년 6월 19일부터 3일간 홍익대학교에서 열렸다. 간판 디자이너는 도시의 인상을 만드는 전문예술가이다. 이제 간판 제작자들은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전문가로서의 의식과 책임감을 공감하고,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 한다. 2007년 간판디자인 학교는 총 10강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최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주었다. 간판문화연구소는 간판제작자, 창업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사회의 간판디자인 문화를 이끌 프런티어를 양성하고자 한다.

● 연구프로젝트1 수덕사 집단 시설지구 아름다운 거리 조성방안연구

충청남도는 2007년 8월 예산 수덕사 입구 집단 시설지구인 사하마을을 간판시범거리로 지정하였고, 간판문화연구소가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실시 지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마을의 통합적인 이미지 전략 수립을 위해 간판, 거리, 마을, 상품과 상점 차원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린이 마을탐험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 간판문화연구소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연구프로젝트2 옥외광고에 대한 사회의식조사 및 개선방향연구

간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간판문화연구소는 간판 문제의 복잡한 요소에 대한 이해와 현실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해 사회의식조사와 개선방향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었다. 간판에 대한 관심도, 좋은 간판상(像)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의지와 개선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식을 조사하였고, 이는 앞으로 행정부처가 간판 문제와 관련된 주체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고 최적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 연구프로젝트3 우리나라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옥외광고는 단순히 규제나 관리의 대상을 넘어선다. 적극적인 도시 문화 요소이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황 파악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옥외광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황 파악을 통해 옥외광고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해 사회적 수준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연구프로젝트4** 간판개선 시범사업 현황 및 평가연구

간판 시범사업의 목적은 실제적인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좋은 모델을 보급해 자연스런 파급 효과를 얻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시범사업들이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획일적인 거리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8월까지 종료된 시범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후 평가의 틀이 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다.

도시공간연구소

함께 만드는 도시, 삶이 쌓이는 도시 _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공간을 형성하고 문화를 축적한다. 도시공간연구소는 여러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어떻게 공간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도시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삶을 포개나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과 공간, 그 사이에 문화와 삶의 숨결이 있다.

››› 주요 활동

2007년 이후 도시공간연구소(USL)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경관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마을의 공공재를 스스로 관리 ·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다층적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 지역행정조직과 각계 전문가들이 공조해 지역인프라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도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거창 갈계리 숲옛마을 만들기

2006년 가을부터 경남 거창의 갈계마을 주민들과 함께 '숲옛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갈계마을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갈계마을다운' 마을의 모습을 발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태 주민들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인프라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강진 물결푸른풍경 만들기

강진읍의 군립도서관 앞 공원은 본래 읍의 전설이 얽힌 커다란 연못이 있던 곳이자 읍내 유일의 공원이다. 이곳은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쉼터이며 아이들의 놀이터이다. 이곳에 주민들과 함께 물길을 조성하고 문화놀이시설을 디자인하고 있다. 연못터의 기억을 되살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 우산슬로월드 마스터플랜

세상은 속도를 선호한다. 그런데 과연 빠른 것이 좋은 것일까. 희망제작소 기획팀과 뿌리센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슬로월드 주민추진위와 함께 전남 장흥군 우산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다. 장평면 우산리, 병동리 일대의 여섯 개 마을과 인근 지역의 활성화 방안 및 운영 프로그램,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까지 슬로우월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총체적인 계획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효율과 속도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풍조 속에서 슬로우월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세계공원연구소

살아있는 문화, 공원에서 만들기 _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다.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는 도시구조를 생태적으로 재편성해 도시 자체는 물론 도시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도시 내 녹지는 그 자체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도시민의 쉼터 역할을 한다.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녹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운동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기능을 하는 획일적 장소가 아니다. 자연생태공간을 기본으로 하되 입지 특성과 설립 목적, 이용객에 따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맞춤형 공원을 원한다. 세계공원연구소는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 주요 사업

- 세계공원연구소는 공원 아카이브를 구축해 국내외 우수 공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양질의 공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모아 아이디어 창고로 활용한다.
- 세계공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존 녹지체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용을 증진시키고 홍보한다.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공원디자인 컨설팅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원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킨다.
- 일반인 및 전문가와 함께 공원 관련 정보를 나누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공원투어 프로그램, 공원 즐기기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Center for Alternatives

대안센터

| 우리시대 희망찾기 |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 땅과집연구소 | 재난관리연구소 |

> > >

일상은 미래에 도래할 세상의 큰 터전이며, 다양하고 풍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지향이 조화로운 사회, 인간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또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참여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시대 희망찾기

우리시대 희망찾기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개혁의 전망을 모색하는 연구출판 사업이다. 한국사회는 민주화과정을 통해 군부독재시기에 형성되었던 사회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양극화와 비민주적인 생활문화, 각 사회영역의 소통부재, 사회발전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쟁과 갈등, 콘텐츠와 비전의 부족 등으로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시대 희망찾기는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의 생활경험에 대한 구술면접을 통해 제도나 통계만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국의 사회현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에 기초해, 의사표현의 분출에 따른 대립과 갈등의 조정, 비전과 콘텐츠의 풍부화, 사회 리더십의 형성, 부패와 비효율의 극복 및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산,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개혁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
- 시민들의 생생한 육성을 직접 듣고 취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사회구성원의 생활 경험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구술면접 연구
- 67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13개 영역 390여명의 시민을 만나 총 780여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해 13권의 단행본으로 출판

››› 연구 주제

우리시대 희망찾기는 한국사회 각 영역의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생활세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주제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통일, 세계화, 노동, 사법 등 영역별로 세분해 진행한다. 연구주제의 카테고리는 총 13개이며 구체적인 영역과 책임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 책임연구 유시주
- 교육 / 책임연구 정병호
- 공공재정 / 책임연구 이원희
- 시민사회 / 책임연구 주성수
- 세계화 / 책임연구 이대훈
- 주택 / 책임연구 최민섭
- 사회복지 / 책임연구 정무성
- 환경 / 책임연구 소병천
- 문화예술 / 책임연구 임정희
- 노동의 양극화 / 책임연구 이병훈
- 평화통일 / 책임연구 김귀옥
- 대안사회 / 책임연구 구도완
- 사법 / 책임연구 김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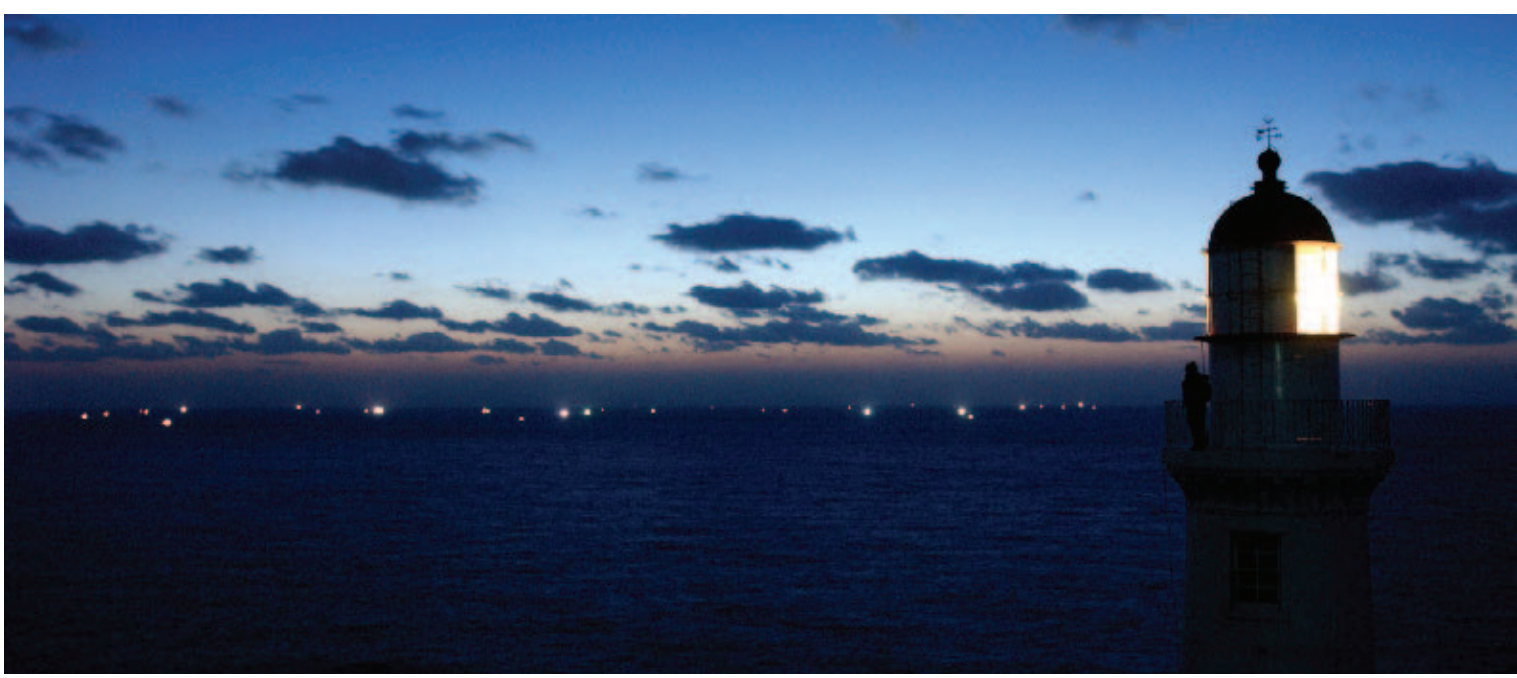
››› 성과

- 우리시대 희망찾기 시리즈의 첫 권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출판 (유시주 · 이희영, 창비, 2007.6.30)
- 민주주의 영역 구술자 초청 감사의 밤 행사(2007년 7월 13일)
-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수상
  - 문화관광부 선정 2007 교양도서
  - 한국출판인회 선정 8월 이달의 책
  - 인문사회과학출판인 협의회 선정 2007 올해의 책
- '교육문화,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 현장의 목소리' 심포지엄 개최(2007년 11월 29일)
  본 심포지엄에서는 우리시대 희망찾기 교육팀(책임연구, 정병호 교수)이 지난 1년 여 동안 진행해 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보고서는 단행본 출판과 별도로 2008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 출판 계획

우리시대 희망찾기 총 13권 중 2007년 출판된 1권을 제외한 나머지 12권은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걸쳐 완간될 예정이다. 출판순서는 아래와 같다. 각 주제명은 가칭이며, 괄호 안은 책임 연구원이다.

- 교육문화,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정병호)
- 재정개혁의 낮은 목소리(이원희)
- 시민사회, 시민이 만드는 희망공동체(주성수)
- 세계화에 대한 세계 각지의 대안찾기(이대훈)
- 집(최민섭)
-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정무성)
- 양극화의 덫을 넘어(이병훈)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하나의 희망 찾기(소병천)
- 창의성이 매개한 문화실천(임정희)
- 하나 된 평화의 나라(김귀옥)
- 대안사회(구도완)
- 우리들의 사법, 불신을 넘어 희망으로(김두식)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사회공헌 참여를 통해 만드는 행복한 세상! _ 최근 우리사회는 평균수명 증대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년기의 삶,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주요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54.1세로 퇴직자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민간비영리단체에 참여해 보람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는 이들의 참여로 기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 주요 활동

사업구분		추진개요
조사사업	은퇴자 욕구조사	• 양적조사 : 직장인 · 퇴직자의 퇴직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조사(퇴직자304명, 직장인 293명) • 질적조사 : 중장년층의 일(work)과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15명 심층면접 조사)
	NPO 수요조사	• 양적 · 질적조사 (포커스그룹) : 퇴직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NPO기관 수요조사 – 전국 NPO기관 181개 설문조사 – 7개 기관 관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병행
연구사업	국내연구	• 조기퇴직자의 전직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외연구	• 퇴직자 프로그램의 해외사례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미국, 일본, 프랑스 해외조사 보고서)
NPO 시범학교 운영	퇴직자 학교	• 2007 행복설계 아카데미 – 1기 : 대기업, 관공서 퇴직자 38명 / 2기 : 경기도 퇴직공무원 25명
	NPO 실무자 학교	• 2007 제1차 NPO리더 워크숍 – 날짜 : 8월28일~29일 (1박2일) – 대상 : NPO리더 45명
	직장인순회강연회	• 박원순 변호사의 직장인 순회강연회 (대한생명, 포스코 임직원 약 250여명)
NPO 실태조사	해피리포터 운영	• 대학생 시민기자단 해피리포터 운영 – 2007년 7월~12월까지 (1기) – 전국 대학생 40명 모집 : 125개 NPO 단체 취재 / 아름다운 시니어 발굴
웹구축	해피시니어 웹사이트 개발	• 해피시니어 티저사이트 5월 오픈 • 해피시니어 본 사이트 '행복발전소' 12월 오픈
심포지엄	해외초청강연 및 국내심포지엄	• 일본의 퇴직자 실태 및 사회공헌활동 사례 소개 /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 날짜 : 2007년 11월 29일 –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홍보	기자회견 방송 및 신문보도 기타	• 기자회견 : 8월 24일 (신문, 방송 보도) • 연간 총 27건의 방송 및 신문에 관련 기사 보도 • 아름다운 이달의 시니어 (월 1명씩 발굴, 취재) • 해피시니어 로고, 브로셔, 각종 판촉물 제작
출판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발간	• 연구보고서 총 5권 발간 • 단행본 1권 출판 : 해외조사 보고서 (2008년 1월 예정)

››› 전망

2008년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민간비영리기관에서 퇴직자들의 참여가 단순한 재취업,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이 가진 전문적 역량을 사회와 공공영역의 가치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퇴직자들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사업 :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퇴직자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위한 이론적 틀 마련
- 교육사업 : 전문인 퇴직자의 민간비영리단체 참여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용
  - 행복설계 아카데미 (4회) 양성과정 / 아카데미 수료생 지원 프로그램
  - 컨설턴트 양성 및 운영 / 희망직장만들기(Network &기업컨설팅 사업)
- 실행사업 : 인생의 후반부를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장 마련
  - 아름다운 시니어상 제정 / NPO 자료센터 오픈
  - 해피탐사단 창설 및 운영(시니어 기자단) / 해피리포터 계속 운영 (대학생 기자단)
- 홍보 · 출판 사업 : 퇴직자의 나눔과 참여의 삶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
  - 언론 캠페인 / 기자회견 / 해피시니어 관련 단행본 시리즈 출판
-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홈페이지 '행복발전소' 운영 : 시민과 민간비영리단체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

NPO현장 속 아름다운 시니어

환갑 넘어 얻은 '괜찮은' 일자리

정 하 택 | 여주군 자원봉사자센터 사무국장

12월 14일. 영하의 새벽에 우리 지역 군공무원을 포함한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네 번째로 태안반도 기름 유출지역으로 출동했다. 장비 등을 챙겨 주며 다소간 분주하고 바쁜 배웅을 하고 난 뒤 모처럼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열어 보았다. 해피시니어 프로젝트팀의 메일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나는 지난 2007년 11월 27일 여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일을 하게 되었다. 사무국장인 나의 임무는 센터의 살림을 살피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현장으로 인솔하는 것이다.

센터에는 몇 달간 전임자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007년 동절기 여주 관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낼 김장 담그는 일이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었다.

배추 2천포기를 김장하여 관내에 있는 6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나누어 보내는 일이었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140명의 자원 봉사자들은 단 이틀 만에 배추 1천600포기, 무우 160개, 고춧가루 180근, 젓갈 8통, 소금 7자루로 200상자의 김장을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봉사자의 날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내빈실 및 일반 참가자들에게 한국차를 대접하는 차봉사가 우리의 임무였는데, 5명의 센터 직원과 7명의 봉사자가 종일 차 시중을 들었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참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바쁜 일과 속에 모처럼 늦은 휴일을 만끽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다. 내 귀에 태안반도 앞 해상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태안반도에서 기름제거를 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장비를 구입하느라 꼬박 하루를 정신 없이 보냈다. 12월 11일 첫 번째로 찾은 태안반도, 천리포 해수욕장 재난구역은 실로 참담했다. 재난지역을 처음 접한 우리 봉사자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허공에 뜬 기름냄새와 육안을 파고드는 징글맞은 기름, 검은 기름을 씻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야! 큰일났구나."

누군가의 탄식에 우리 일행은, 떨리는 손으로 장구를 갖추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현장으로 내달았다. 모래사장에 깔린 기름덩이를 모래와 함께 삽으로 퍼서 비닐마대에 넣고, 기름모래 담긴 마대자루를 바닷물이 닿지 않는 높은 지대로 옮겼다. 일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 왔을 때는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그렇게 세 차례를 다녀왔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다. 몸은 한없이 무거운데, 가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나는 봉사가 천직인가? 환갑 넘어 얻은 일자리이지만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정하택 | 평생 기업인으로 살아왔다. 1기 행복설계 아카데미 수료 후 여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땅과집연구소

|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해부하다 |

››› 연구 동기

한국의 불평등을 초래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부동산(땅과 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된 적 있으나 현실에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당시의 입법정신이 크게 후퇴한 채로 남아 있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광풍은 다시 한번 서민들의 희망을 꺾었고,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 연구과제는 '한국토지공사'를 집중분석하는 것이었다.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홍성태 교수
- 공동연구원 변창흠 교수, 남기업 박사, 심충진 교수, 이창길 박사, 김태우 변호사, 이윤하 건축사, 정원 변호사, 조명래 교수, 위평량 연구위원

● 연구 분야

토건국가의 총론적 접근, 조직인사, 경영회계, 화성동탄택지 사례, 파주출판산업단지 사례, 토공의 사업확장 과정상의 문제점, 토지공사의 미래 개혁방향, 한국 택지조성공급제도 사례, 선진국 토지소유권과 유사기구 등의 분석

››› 연구의 의미와 기대효과

- 민간연구소가 하나의 공사(公社)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
- 희망제작소의 첫 번째 국가적 의제 연구
- 한국의 토지 및 주택관련 기관의 미래 역할 방향 제시
- 해외 선진국 부동산제도와 활용사례 소개를 통한 한국에서의 정책 개발
- 토지제도 및 주택제도 개선 등의 이론적 배경제공

››› 연구 과정

- 2007년 7월 연구 방향과 시각 조율
- 2007년 8월 최종 제안 완료
- 2007년 9월 연구시작과 함께 매월 1회 정규미팅
- 2008년 1월 연구대상인 토지공사에 공표 및 전달
  - 2008년 2월 공개 심포지엄 개최
  - 2008년 3월 단행본 출판 예정

| 글로벌 싱크탱크 연구 |

››› 목적

산업화 이후 추가적인 발전의 핵심 요소는 인적자원의 축적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식기반사회'라 한다. 선진 여러 국가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소들이 많지만 특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12위권에 달하지만 이러한 싱크탱크가 활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고, 그 개념 또한 일반화돼 있지 못하다. 연구팀은 세계유수의 싱크탱크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역사, 운영, 역할은 물론 사회적 배경 등을 살피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찾아 보았다.

››› 성과

- 미국(17개 기관) : 홍일표(미국 워싱턴대 시거센터 연구위원) _ 단행본 출판 단계
- 일본(16개 기관) : 이영근(일본쯔꾸바대 사회학 박사) _ 초고 완성 단계
- 독일(17개 기관) : 박명준(독일 켈른대 노동사회학 박사) _ 단행본 출판 단계

››› 전망

2008년 5월에 미국, 독일, 일본의 싱크탱크 방문기 전체가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의 연구 경험과 전문성 확보를 토대로 2008년은 더 큰 연구과제, 더 의미 있는 연구과제인 가칭 '학술진흥재단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관리연구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 그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도화하고 첨단화할수록 화재, 붕괴, 폭발, 침몰, 추락 등 인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학계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가 중심이었고, 그나마 체계적이지 못했다. 재난 관리연구소는 각종 자연 재해, 인적 재난, 신종 재난에 대해 조사 · 분석 · 연구 · 교육하고, 관련기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재난관리를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이바지 할 것이다.

- 각종 재난 관리에 대한 교육 · 연구 · 조사 · 출판사업
-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들의 상호협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재난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컨설팅
- 연구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교류 및 학술용역사업
-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
-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주요 활동

● 2007년 세미나 개요

차 수	일 자	주 제
1차	4월 20일	재난을 부르는 재난관리? 재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2차	7월 13일	재난관리정책, 무엇을 어떻게 협력 · 경쟁 · 견제 · 비판 · 감시할 것인가
3차	7월 20일	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와 재난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차	7월 31일	재난관리의 수요자 중심 접근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5차	8월 3일	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기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
6차	8월 10일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7차	8월 17일	재난관리 자원봉사자의 수요와 필요 역량
8차	11월 1일	우리 시대의 국가 위기관리 : 평가와 도약
9차	11월 8~10일	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재해구호 거버넌스와 재난관리 협력 체계 회의
10차	12월 24일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모색

2008년 세미나 개요

차 수	일 자	주 제
11차	2월 13일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모색 (시리즈)
12차	2월 14일	사회안전망 정책의 현재와 미래 : 재난관리와 사회복지
13차	2월 26일	문화재와 국가 주요자산 재난관리 방안에 관한 학술회의
14차	3월 21일	일본 교토대와 공동세미나
기타		국제세미나 (6월 중국/10월 한국) 예정
기타		재난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2008년 총 10여회 이상 세미나 계획

2007년 피해현장조사

날 짜	지 역	비 고
6월 10일	충북 진천군 대문리	3명
6월 10일	충북 진천군 명암리	3명
6월 3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7명
6월 3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용진리	7명
7월 6일	경남 진주시, 김해시, 양산군	10명
7월 7일	경북 성주군	10명
7월 21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9명
8월 4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7명
8월 11일	강원도 한계령 인근	6명
8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덕적리	6명
8월 18일	제주 해안마을	4명

● 연구보고서

- 제1과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 및 대비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제2과제 | 재난관리관련 법령 및 예산 운용의 효율화 방안
- 제3과제 |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4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조사
- 제5과제 |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수립방안
- 제6과제 | 재난관리 자원봉사 수요 및 필요역량에 관한 기초조사

››› 전망

재난관리연구소는 2008년 지속가능한 안전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알차고 심도 깊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재난의 근원을 밝혀 향후 재난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제된 지식 창출
- 다양한 재난관련 지식들 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지식공간 창출
- 연구주제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선정과 실사구시적이고 장기적인대안 마련
- 재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담보할 어젠다의 발굴 및 선점

Info Hub

지혜센터

| GBT | WCL | KMSI

> > > 지혜는 미래의 복잡한 현상을 예견할 수 있는 혜안이나 식견이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지혜는 어느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자료가 모여 정보가 되고,
그것이 지식으로 쌓인 후에 비로소 지혜가 생성되는 것이다.
희망제작소 지혜센터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 지식,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곳이다.

GBT Global Brain Today

GBT는 국내외 싱크탱크들을 소개,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지도를 그려나가는 희망제작소의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다. 세계의 연구단체와 싱크탱크의 활동 내용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기존의 지식에 대안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지식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쓰이게 만든다. 기존의 지식 형성이 '위에서 아래로' (Top-to-bottom)의 방식이었다면, GBT는 '아래에서 위로' (Bottom-to-top)의 방식을 지향한다. GBT는 지식이 소수 전문가나 정책가들의 전유물에서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 세계 지식활동의 동향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공유한다
- 싱크탱크의 사회적 의미를 소개하고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하며 저변을 확대한다
- 연구 활동의 확산을 위해 해외의 대안적인 연구 및 창안 활동을 소개한다
- 국내외 다양한 지식, 기관, 인물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성과

GBT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1년여 동안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뿐 아니라 비교적 작고 대안적인 단체들을 균형있게 소개, 분석했다. 특히 희망제작소 연구위원과 〈시민과세계〉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홍일표 박사는 지난 1년 간 꾸준히 미국 싱크탱크를 연구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미국, 독일, 영국의 싱크탱크를 연구하고 분석해왔다. GBT는 2008년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 홍일표(미국 조지워싱턴대 시거센터 객원연구원)
- 박명준(독일 쾰른대 사회학 박사과정, 〈프레시안〉 기획위원)
- 이대훈('ARENA' 사무처장, 평화박물관 이사)

››› 전망

2008년에는 현재 독일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명준과 한국의 'ARENA' (새로운 대안사회 건설을 위한 아시아교류) 사무처장 이대훈이 합류하여 각각 독일의 싱크탱크와 아시아 지역의 싱크탱크를 분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GBT는 날카로운 시각과 탄탄한 학문적 바탕을 지닌 필진들을 더욱 많이 확보해 내실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필진 한마디

홍일표

미국을 넘어 세계를 기획하는 지식권력, 워싱턴 싱크탱크의 다채로운 면모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AEI), 미국진보센터와 같은 초거대 싱크탱크 연구자들이 쏟아내는 말과 글은 한반도의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누구이며,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분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GBT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싱크탱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관찰하는 이들을 다시 감시' (Watching the Korean Watchers)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될 것입니다.

박명준

텔레비전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애써 모은 돈으로 유럽 배낭여행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곳의 멋진 교회와 예쁜 집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자연에 감명 받기도 하고, 유럽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오늘의 유럽을 만든 것은 유럽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잘난 정부를 두어서가 아닙니다. 유럽사회가 정부에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키워 왔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그간 무수한 아이디어 뱅크들이 설립되었고, 현재에도 가동 중입니다. 유럽의 내일을 꿈꾸고 설계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가 보려고 합니다. GBT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을 성숙하게 가꿔보세요.

WCL World City Library

세계도시라이브러리(WCL)는 미래 한국 사회의 밑그림이 될 해외사례를 국내외 연구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희망제작소는 한국 최초 민간 싱크탱크로서 미래 한국 사회를 준비하며 '실사구시', 'Think globally Act locally(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를 모토로 제시하고 있다. 발로 뛰며 체험한 해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도록 이끄는 WCL은 희망제작소의 지식 라이브러리이다.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협소하고 자의적인 해외사례 제시에서 벗어나 해외 거주 연구자들과 해외동포, 국내 연구자, 시민들이 함께 유학 · 연수 · 여행 · 취업 활동을 통해 체득한 해외사례를 나누고 더함으로써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 주요 활동

● 세계도시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오픈

• 2007년 2월 21일 오픈하여 국내외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열었다.

● 명예관장 임명과 기획자문위원단 구성

• 서대원 현 광운대학교 석좌교수(전 헝가리 대사)를 명예관장으로, 국내외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계의 연구자와 활동가 26명을 기획자문위원단으로 임명하고 기획자문위원회를 열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하는 시민도시탐방프로그램

• 시민도시탐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서 출발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직접 해외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 항공권 협찬을 통해 이뤄진 시민도시탐방프로그램에는 환경 · 예술 · 문화 · 교통 ·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로 총 22명이 참여하여 일본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을 직접 발로 뛰며 탐방했다. 시민도시탐방프로그램은 시민들을 발로 뛰는 연구자로 변화시켜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서게 할 것이다.

● 특파원 사업

• 2007년 30명의 특파원이 세계도시의 소식을 전해왔으며, 베스트 특파원을 선정해 왕복항공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특파원 사업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시민,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미래사회의 초석이 될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 전문가 필진

• 해외 연구자 2명, 국내 연구자 8명, 강원도 정선의 지역리더들이 한 그룹이 돼 해외 도시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필진으로 참여했다.

- 김정후의 **유럽도시건축 정책과 문화**
- 김해창의 **생태도시를 가다**
- 박원순의 **디지털다이어리**
- 양도식의 **세계화와 월드시티 만들기**
- 정혜진 기자의 **착한도시 이야기**
- 명사 승효상의 **빈자의 도시**
- 명사 이기웅의 **파주출판도시 20년**
- 명사 정기용의 **공공프로젝트**
- 김규원의 **Slow Travel**
- 박웅현&박규호의 **북경 포토에세이**
- 선현주의 **싱가포르 스토리**
- 최주영의 **도시환경 연구**
- **해외스키마을의 견학보고서**

● 누리술래단 2, 3, 4기 활동

• 대학생 위주의 시민연구자 발굴 프로그램으로, 2007년 2기 · 3기 · 4기를 진행했다.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점에서 출발해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 네트워크 확보

• 11개 언론, 연구소, 시민단체가 자료 공유 협약을 통해 세계도시라이브러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 전망

2008년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참여와 해외 사례연구를 결합한 새로운 온라인 도서관이 될 것이다. 풍부한 필진섭외와 더불어 실속있는 이벤트를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전문가 만남 · 해외 희망네트워크와의 협력사업 · 출판사업을 준비중이다.

2008년 시작되는 **전문가 코너**

- 이주헌의 **"세계미술관 순례"**
- 전진삼의 **"도시 탐정 CQ"**
- 하승창의 **"뉴욕스토리"**
- 이인식의 **"습지야, 새들아 같이 놀자"**
- 차병직 · 문건영 변호사의 **"로드에세이"**
- 도시설계연구소의 **"그린웨이"이야기**
- 조동범의 **"독일 생태 마을 이야기"**
- 이지훈의 **"미국 국립공원에서 배운다"**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조직이나 기업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정보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KMS를 구축해 구성원들의 역량증진과 생산성 향상,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창립 초기부터 최상의 KMS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 맥킨지, 청와대 및 정부의 KMS를 분석, 연구하여 희망제작소의 특성에 맞는 KMS를 구축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작한 '지혜의정원'은 내부 연구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혜의정원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전략들을 세워 갈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KMS를 통해 '집단지혜'를 실현하고 있다.

››› 성과

2007년 11월에 오픈한 '지혜의정원1.0'은 희망제작소의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연구관리와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희망지원, 연구성과물을 볼 수 있는 지혜창고, 연구에 쓰인 참고자료들을 공유하는 보물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디어센터는 희망제작소에서 생산된 각종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희망인뱅크를 통해 희망제작소 내외부에서 물심양면으로 함께하는 희망인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망

지혜의정원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놀이터이자 정보의 장이다. 희망제작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의정원에서 공유되고 각각의 노하우가 여기에 축적, 활용된다. 지혜의정원은 각종 이벤트와 평가시스템을 통해 연구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분기별로 지혜의정원을 평가하여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개편과 추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Center for Social Enterprises

소기업발전소

사람만이 희망이고,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사람에게서, 작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소기업발전소는 작은 것들의 영웅신화를 창조합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소기업발전소 _ 소기업발전소는 희망제작소가 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2007년 7월 창립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기업발전소가 지원하는 대상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적 운영원리를 채택한 단체 혹은 개인으로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의 1퍼센트를 기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소기업발전소가 지원하는 대상은 크게 지역소기업, 사회적기업, 대안기업으로 나눈다.

● 지역소기업

특정지역의 농산물과 가공품, 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소득사업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기업. 농촌소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전통문화 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거나 개선하고,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은퇴자, 주부 등)를 고용하거나 이들이 직접 창업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기업을 말한다.

● 대안기업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적 가치의 보존, 인류애적 가치의 범지구적 확산, 사회적 다양성 및 창의성의 촉진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환경대안, 공정무역, 문화예술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비전

- 우리 환경에 맞는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 구축과 확산
- 국민 자아실현의 다양성 추구, 건강하고 창의적인 기업가 문화 주도
- 사회적 지향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 확산으로 제3의 자본주의 창출
- 시민주도의 대안적 소기업운동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 달성

››› 미션

- 소기업을 창업, 육성하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 조성
- 창의적 · 도전적 · 사회창안적인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 사회적 자본 조성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 구축 및 확대

››› 사업 개요

● 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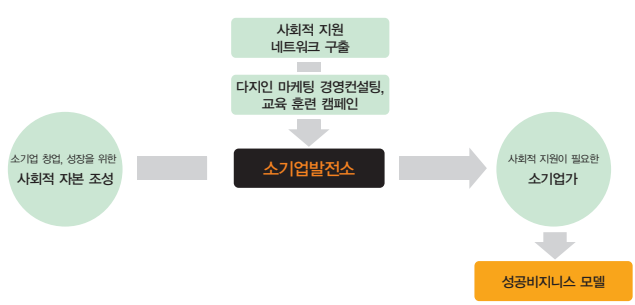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와 자본이 필요한 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 사업의 종류

- 공모지원사업 : 전국에 있는 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개적인 모집과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한다
- 기획지원사업 : 긍정적 미래 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영역을 도출하여 소기업 발전소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

| 써포터즈들의 지원분야 |

| 희망소기업 지원방식 |



● 진행 경과

- 2007년 7월 : 창립식
- 2007년 10월 : 서포터즈(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및 기업경영의 전 과정, 법률 · 회계 · 품질관리 · 디자인개발 · 마케팅 · 유통 · 홍보판촉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모집
- 2007년 11월 : 국제 컨퍼런스 '사회적기업과 CSR 2.0' 개최
- 2008년 1월 : 1차 희망소기업 지원 협약식

● 지원 소기업

번호	업체명	주요 제품 및 업태	사 유
1	꽃빛향	연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마을 소득증대 사업개발
2	감자	감자재료 화장품 제조, 판매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3	풀무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바른 먹을거리 제공
4	청토청꿀	토종꿀	전통 밀원 채집 계승 및 발전
5	세왕(영)	농민주	전통주 계승, 지역농산물 소비
6	보선선씨종가	장류	전통장류 계승, 지역농산물 소비
7	한가지골	브로콜리 국수 제조 판매	바른 먹거리를 값싸게 제공
8	새순(영)	고구마를 활용한 농산물가공	지역고구마 소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9	한솔(영)	콩 가공품	지역콩 소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바른먹거리 보급
10	참솔(영)	솔잎 발효효소	지역솔잎소비, 건강식품 보급
11	비움(영)	농업	지역농산물소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바른먹거리 보급
12	조인덕생산골	장류 개발	전통장류 계승, 지역농산물소비
13	감이랑	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지역감소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14	그날이 오면	인문사회과학서적 전문서점	국내 유일의 사회과학서점
15	㈜스카이 휠	장애인 자전거 제조, 판매	공익 아이디어
16	개실마을	전통한과, 농산물, 한옥민박, 민속체험	마을 소득증대 사업,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
17	서라벌찰보리빵	찰보리빵	지역보리소비, 노인일자리 창출

* (영) 영농조합

Planning Office

기획실

| 기획1팀(지역 컨설팅) | 기획2팀(사회공헌 컨설팅) | 기획3팀(공공정책) |

> > >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존경받고 사랑받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 사회.
기획실이 만들어 갑니다.

기획1팀 지역 컨설팅

급속한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만들까. 동시에 지역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획1팀(지역컨설팅)은 '지역은 주변이 아니다' 라는 모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기획1팀이 컨설팅을 통해 만들어가는 지역을 '희망지역' 이라 부른다. 시간이 갈수록 전국 방방곡곡에 더 많은 희망지역이 속속 생겨날 것이다.

››› 주요 성과

● 충청남도

2006년 4월 뿌리센터로부터 독립, 기획1팀(지역컨설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처음 구성원은 2명이었고, 첫 과제가 '충남컨설팅' 이었다. 약 한달 간 준비하였고, 5월 14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은 세계를 초대하고 그들이 오고 있다' 라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6월 4일 희망제작소와 충남도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에서 기초자치단체 컨설팅 사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컨설팅을 맡게 된 것이다. 3개년 계획으로 체결된 충남도와의 MOU는 총 15개 과제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4대 과제를 선정,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정, 약 4개월간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12월 29일 최종보고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다.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아 연구원 총 6명이 제안서를 준비하였다. 이제까지 지역컨설팅은 주로 지역경제나 문화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화성시 컨설팅을 통해 환경분야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다이어트와 탄소중립도시라는 21세기 조류에 부응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전남 장흥군

2006년 말 장흥군이 희망제작소의 도움으로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11월 19일 '장흥 우산슬로우월드 마스터 플랜' 이라는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해 희망제작소 부설 도시공간연구소, 주민참여클리닉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선정 30개 국가지정 마을에서 가장 우수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충남 금산군

충남 금산군이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한국환경정책학회를 통해 희망제작소에 컨설팅 의뢰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기획1팀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향후 기획1팀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다. 이 사업 역시 건설교통부에서 서류부문, 실사부문 합계 1위를 차지하여 국내 지역컨설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 전망

이밖에 장흥군 '유치면 주민소득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 을 수행하였고, '목포 원도심 재활성화 컨설팅', 영월군 · 증평군 · 완주군 · 안산시 · 화성시 · 동탄 신도시 등과 새로운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희망제작소 기획1팀은 각 단위 지자체별 컨설팅을 경험, 성공리에 과업을 완수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컨설팅 전문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획2팀 사회공헌 컨설팅

사회공헌, 공익사업 연구 컨설팅 _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하며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대안적 싱크탱크이다. 특히 경제적 주체로서 기업과 단체들이 사회적 기여와 참여, 투자를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기업과 단체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일 잘하는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는 것이 기획2팀의 바람이다.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전략컨설팅
- 공익 캠페인, 공익 마케팅 기획 개발
- 기타 공익사업콘텐츠 개발
- 내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모델 수립
- 사회적 기업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 특징

- 창의적인 내용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 구체적인 대안제시 :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계획 중심
- 기업문화 창조 :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변화 유도
- 지역사회발전 : 지역밀착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
- 협력모델 구축 : 민 · 관 · NGO 협력모델 제시
- 효과 있는 사업 : 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적 효과가 큰 방향 제시
- 지속적인 관계 : 모티터링, 자문, 후속사업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변화 유도

››› 주요 성과

프로젝트 명	발주처	수행기간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관한 연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7.1~2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신규사업 개발 및 정보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2007.1~3
봉은사 새천년 비전 –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봉은사	2007.6~8
열린 주주총회 기획 및 실행계획 설계	풀무원	2007.7~8
강원랜드 CSR 전략수립 컨설팅	강원랜드	2007.11~12
한국갱생보호공단 신규사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한국갱생보호공단	2008.2. 현재 진행 중
청소년 교육문화 핵심사회공헌 사업개발	네오위즈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공간 컨셉 수립 및 주민참여모델 구축 – 주민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조사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태양광에너지 국제컨퍼런스 NGO 분야 기획	웅진그룹	

기획3팀 공공정책

기획3팀은 심층적인 공공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17대 대선 직후 새 정부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주목하였다. 역대 인수위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미국 인수위에 관한 전문가의 책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더 나아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 성과

● 심포지엄(2007년 12월 27일)

'좋은 준비, 좋은 정부' – 인수위 67일이 5년간의 국정 성공을 가늠한다

제1세션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칙 – 5년의 성공을 가늠할 60일의 준비
발제 :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제2세션 거버넌스 – 새 정부와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조건
발제 : 김선혁(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3세션 고위직 인사 – 새 정부의 성공, 첫 인사에 달렸다
발제 : 김판석(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

제4세션 정부운영 – 국정운영의 조건과 과제
발제 : 박광국(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제5세션 커뮤니케이션 – 웹2.0시대, 인수위원회와 언론과의 관계
발제 : 최영재(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공공리더 지혜총서 발간

•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희망제작소 엮음, 중앙북스, 2007.2.13)

정원식, 이종찬, 임채정 등 역대 인수위 핵심 관계자 17명 및 미국 인수위 전문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스티븐 헤스 인터뷰 수록

•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리처드 뉴스타트 지음, 이종훈 옮김, 중앙북스 2008.1.10)

미국 대통령학으로 저명한 리터드 뉴스타트 교수가 케네디 정부에서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한 메모를 묶은 원저 〈Preparing to be President〉 번역서

Web Media

웹미디어

| 웹운영 | SI |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웹미디어팀은 희망 제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콘텐츠를 잘 보여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웹운영팀

웹운영팀은 희망제작소가 생산하는 각종 콘텐츠를 회원이나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술을 제공한다.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대안과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바람이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희망을 당당히 주장하고 누구와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곳. 희망제작소 웹운영팀은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아지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위한 최신의 웹 트렌드 적용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이 이슈를 공공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폭넓은 공공의 주제와 연구과제들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풀어내려면 더욱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웹미디어팀은 연구주제의 콘텐츠화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신 웹트렌드를 적용하고 있다.

● 열린 웹, 균형 잡힌 정보가 이끌어내는 성숙한 참여마당

단순히 보고 즐기는 웹이 아닌 참여를 통한 변화의 장으로서, 현실적 대안의 창구로서 웹서비스를 구현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의 풍부한 연구주제와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과정에 누구나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는 웹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 웹을 통한 연구 취지와 창립 이념의 효과적 전달

지역의 발전과 대안, 공공문화, 사회창안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와 해외 연구주제까지, 우리 나라의 잠재력과 희망의 불씨를 다시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연구 영역은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웹미디어팀은 빠르게 넓혀가는 연구영역과 발전하는 웹환경을 최적화하여 희망제작소의 창립이념과 연구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참여의 공간을 더욱 넓히고 있다.

● 각 사이트 명칭과 URL 표시:

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 소개: www.makehope.org/about/intro/vision_methodology.php
영문 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english/intro.php
사회창안: www.makehope.org/idea/index.php
보행권캠페인: www.makehope.org/walk
간판문화연구소: www.bettersigns.org
대한민국 좋은간판상: www.ganpansang.org
세계공원연구소: www.makehope.org/greenspace/main.php
세계도시라이브러리: www.makehopecity.com
조례연구소: www.makehope.org/ordinance/main.php

자치재정연구소: locfin.makehope.org
재난관리연구소: www.makehope.org/disaster/main/index.php
해피시니어 행복발전소: www.makehappy.org
소기업발전소: www.makehope.org/small_biz/index.php

››› 수행 업무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2차 개편
- 행복발전소 홈페이지 오픈
- 사회창안 홈페이지 오픈
- 재난관리 연구소 홈페이지 오픈
- 간판문화 연구소 홈페이지 오픈
- 김상수 사진전
- 보행권 캠페인
- 대한민국 좋은 간판상

››› 향후 과제

- 블로그 도입
- 동영상방송 도입
- 실명인증제 도입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3차 개편
- 희망제작소 통합 CMS개편
- 희망제작소 다국어 홈페이지오픈
- 아카데미, 희망모울 서비스 오픈

SI사업부

시스템 통합(S.I.)은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 · 보수를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주 사기관업무에 주로 적용되며, 작게는 단순 홈페이지부터 크게는 사업관리시스템, 결제시스템, 기업내 지식관리 시스템 등 ERP, KMS, CMS 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2007년 초에 신설된 희망제작소 SI사업부는 희망제작소만의 독특한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시스템구축부터 원활한 운영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Total IT Service Provider' 라는 취지아래 IT에 관련된 기술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기술진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적 능력 배양으로 확고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희망제작소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다방면에 걸친 인적, 물적 네트워으로 운영의 묘를 창출하여 직 · 간접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수행 범위

- 공공정보 시스템
- 통신관련 시스템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금융관련 시스템
- 지식관련 시스템
- 네트워크인프라 시스템

››› 수행 업무

- 민주화운동 기념사료관 도서 시스템 구축 (팀원)
- (재)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팀원)
- (재)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재)한국지역진흥재단 농특산물 홍보 시스템 구축
- (재)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구축
- 소기업발전소 정보시스템 제작

희망의 숲

희망인물 5人
인턴 활동
함께하는 사람들
간행물 목록

“더 늦기 전, 좀더 나누고 가야지요”

익숙한 솜씨로 사무국 한 구석에 쌓아놓은 신문이며 종이를 차곡차곡, 배낭과 가방이 미어터질 정도로 재 넣는다. 그 무거운 짐을 메고 들고 폐지 수집상에 넘긴다. 1킬로그램에 90원, ‘좋은 일 한다’ 며 남들보다 10원 더 쳐준다.

올해 나이 여든 다섯. 김주정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희망제작소를 찾았다. 동장군이 심술을 부리는지 코끝이 시려오는 매운 날씨였다. 매월 두 차례, 첫째 셋째 금요일이 할아버지가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4층, 희망제작소 사무국을 찾는 날이다. 희망제작소 창립부터 시작한 일이니 벌써 3년째 접어든다.

잿빛 점퍼 차림에 갈색 모자를 쓴 할아버지는 입구 소파에 앉자마자 배낭과 천가방, 종이가방을 꺼낸다. 익숙한 솜씨로 사무국 한 구석에 쌓아놓은 신문이며 종이를 차곡차곡, 배낭과 가방이 미어터질 정도로 재 넣는다. 그 무거운 짐을 메고 들고 폐지 수집상에 넘긴다. 1킬로그램에 90원, ‘좋은 일 한다’ 며 남들보다 10원 더 쳐준다. 그렇게 모은 1만원 남짓한 돈을 매달 희망제작소에 후원한다.

“이게 몇 푼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몸이 움직여 줄 때까지는 해야지. 누가 시켜서는 못 하는 일이지요.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방구석에 우두커니 있는 것보단 백배 낫지.”

할아버지는 매주 월, 수 두 차례 마포구 성산동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순둘)에서 8년째, 독거노인을 위한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한다. 한번에 여섯 군데를 도는데,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들이 “도시락을 받아야 할 영감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말한단다. 그 말처럼 정작 자신도 ‘독거노인’ 인 할아버지는 점심을 거를 때도 많다.

할아버지는 또 둘째, 넷째 금요일에는 ‘아름다운재단’ 을 찾는다. 이곳에서도 6년째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부지런히 모은 폐지를 팔아 ‘노인의전화’ , ‘대방복지관’ , ‘에다가와조선인학교’ 를 후원한다. ‘외근(?)’ 을 하지 않는 토 · 일요일엔 ‘수락산성당’ (주임신부 전종훈)에서 미사에 참석하거나 성당일을 본다. 이처럼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몸을 움직인다.

“십 몇 년 전인가,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어쩌다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하게 됐지요. 거기 여든 넘은 한국인 할머니 한분이 계셨는데, ‘나 좀 살려 주세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몸도 맘대로 못 움직이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하니까 외롭고 힘든 거지. 그때, ‘아, 나는 몸이라도 성하니까 늦었지만 봉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일흔 넘어 시작한 일이 훌쩍 10년을 넘어섰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고단하고 힘들어 놓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그만 둘 수가 없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었다. 그 간절한 염원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

“젊어서 남 신세만 지고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갚고 가야지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삶의 좌표로 삼는 시 한수 읊조리며 무거운 짐을 메고 길을 나선다.

설한풍 불어오니 만산수목 낙엽이라/낙엽이야 죽을망정 뿌리마저 죽으리/새봄 다시 올 때 낙락장성하리라

“희망제작소 얼짱 모델, 바로 저예요”

그의 머릿속을 스친 여섯 살 조카의 해맑은 웃음. 저녁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곧바로 준우가 살고 있는 방배동으로 차를 돌렸고, 아이를 렌즈 앞에 앉혔다. 깜박거리는 형광등을 조명 삼아 삼촌과 조카는 호흡을 맞췄다. 준우가 희망제작소의 대표 모델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두 남자가 들어서자 사무실이 환해졌다. 수줍은 웃음에 잘 생긴 외모가 똑 닮은 두 사람. 훤칠한 키의 이경민씨와 그의 귀여운 조카 준우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삼촌과 조카는 이미 희망제작소 안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스타’들이다. 한명은 재주 많은 사진가로, 또 한명은 앙증맞은 모델로 희망제작소에 소중한 재능기부를 해준 까닭이다.

2월의 하늘은 눈을 흩뿌리며 한껏 찌푸렸지만, 빨간 티셔츠를 걸친 준우의 발걸음은 마냥 가볍다.

삼촌 이경민씨는 2년 전부터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어왔다. 전문 사진가는 아니지만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연구원이 업무에 필요한 촬영을 부탁하면서부터다. 각종 자료 사진에서 행사 스케치 사진에 이르기까지 희망제작소의 수많은 풍경이 그의 렌즈를 통해 세상과 만났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연구원들의 프로필 사진도 그의 작품이다.

“창립 초기에 찍은 건데 아직까지 제 사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씨의 은근한 자랑이 밉지 않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빛내고 있는 그의 사진 중 단연 으뜸은 조카 준우의 얼굴.

어느 날 이씨는 사무국으로부터 환하게 웃는 아기 모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소문 끝에 지인으로부터 세 살짜리 아기를 소개받았지만, 과천까지 달려가 찍어온 사진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낙담한 채 서울로 돌아왔죠. 그런데 남태령을 넘어올 때쯤 갑자기 준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의 머릿속을 스친 여섯 살 조카의 해맑은 웃음. 저녁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곧바로 준우가 살고 있는 방배동으로 차를 돌렸고, 아이를 렌즈 앞에 앉혔다. 깜박거리는 형광등을 조명 삼아 삼촌과 조카는 호흡을 맞췄다. 준우가 희망제작소의 대표 모델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준우의 사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씨는 “준우 사진 덕에 형수님께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준우의 부모님도 인터넷에 올라온 예쁜 준우의 얼굴이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이다. 어머니 구미정씨는 “부모가 못하는 좋은 일을 아들이 대신해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사진 찍었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섯 살이던 꼬마는 이제 여덟 살이 됐다. 3월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졌고, 키도 훌쩍 자랐다. “공부가 좋아서 학교 가는 일이 기대된다”며 수줍게 소감을 밝힌다.

“희망제작소는 블루오션을 찾아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연구소나 해피시니어 같은 새로운 기획들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온 거죠.”

창립 초기부터 사무국을 드나들며 꾸준한 애정을 키워 온 이경민씨다. 희망제작소에 거는 기대 역시 누구 못지않게 크다.

“최근 몇 년간 사무실도 커지고 연구원 수도 늘어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질적인 성장도 보여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김성애 사진가

셔터 눌러 나눔 한 장 찍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아 희망제작소가 쑥쑥 커 나갈 것 같다며 그가 덕담을 건넨다. 인터뷰를 마친 그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한다. 나온 김에 삼청동 골목 한 바퀴를 돌까 생각중이란다.

그는 사진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오래된 수동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누볐다. 셔터를 누르는 일이 그저 좋았다. 교과서 대신 렌즈를 손에 꼭 쥔 채 사진학과에 진학했고, 스무 살 무렵부터 10년째 사진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사진 일은 항상 힘들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잡지사 사진기자에서 결혼사진 촬영,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 운영까지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찍어본 사진이 없다. 늘 괴로움이 따르는 생업 전선이지만 행복했단다.

그가 희망제작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사무국을 찾아 여덟 시간에 걸친 촬영을 소화해냈다. 소기업발전소에서 지원하는 회사들의 인터넷 판매를 돕기 위해 웹에 올릴 제품 사진을 찍는 작업이었다. 정성껏 만든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씨는 찍고, 찍고 또 찍었다.

소기업발전소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던 동생의 부탁으로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셔터를 누르면서 자신의 지난날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젊은 나이에 홀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영업에서 홍보까지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하다 보니 자금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소기업 직원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한번이라도 더 찍게 되더라고요."

그는 올해 2월 인터넷에 '카메라 에피소드' 라는 사진 동호인 카페 (cafe.naver.com/episode2008)를 열었다. 이 또한 사진을 통한 나눔 활동의 연장이다. 김씨는 "처음 사진을 배울 때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한 정보도 구하기 힘들어 애를 먹었다" 며 "사진을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직접 초보자들을 상대로 사진 강의를 열기도 했고, 곧 지인으로부터 전시 공간을 빌려 회원 작품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생활 사진가들이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역시 동호회의 목적이다. 모임을 만들기 전부터 함께 사진을 찍어 온 100여 명의 회원이 그를 통해 사진의 맛을 알았고, 또 함께 즐기고 있다. 김씨는 지난번 희망제작소 방문 이후로 희망제작소에서 '사진 나눔'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고 한다. 그의 말 너머로 넉넉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누가 봐도 웃을 수 있고 기분이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사진 속에 녹아있는 까닭이 아닐까. 김씨와 함께 사무국을 찾은 남자친구 성우진씨도 그의 사진이 "편안해서 좋다" 며 거든다. 찍는 이도, 보는 이도 행복한 사진. 그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목표를 향해 김씨는 셔터를 누르고 있다.

"거리에서도 쉽게 희망제작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아 희망제작소가 쑥쑥 커 나갈 것 같다며 그가 덕담을 건넨다. 인터뷰를 마친 그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한다. 나온 김에 삼청동 골목 한 바퀴를 돌까 생각중이란다. '사진기를 챙겨왔느냐' 는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안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사진 인심 넉넉한 주인 덕에 바빴을 그의 사진기도 이날 하루만큼은 편히 쉬었을 듯하다.

'파랑새'는 역시 파랑새였다

그의 희망 에너지는 끝을 모른다.
3년 전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눔의 택시' 운동을 시작할 때도 김씨는 주저 없이 힘을 보탰다.
택시운전을 통해 버는 수입의 1%를 재단에 기부해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의 별명은 '파랑새'다. 안데르센 동화에 등장하는 희망의 상징. 새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대신 그는 달린다. 스스로 '나눔의 택시'라 부르는 차를 몰고 하루 10시간씩 도로를 누빈다. 택시를 운전하는 '파랑새'. 사람들은 택시기사 김형권(61)씨를 그렇게 부른다.

김씨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졸업 후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에서 유능한 광고기획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였다. 자신의 재능을 밑천 삼아 직접 광고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지만, 연이은 부도로 시련을 맞았다. 이후 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는 등 부침을 겪던 그는 8년 전 택시 운전대를 손에 잡기 시작했다. 오십을 갓 넘긴 나이였다.

"내 나이 오십에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몰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좁은 차 안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과의 대화가 그에게 즐거움을 줬다. 숨 막힐 듯 돌아가는 회사 생활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나뿐만 아니라 남도 생각하기. 내가 가진 것을 남과 조금씩 나누기. 김씨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다"고 회상한다.

희망제작소와의 인연도 찾아왔다. 택시는 김씨에게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였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창안센터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손님을 태우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온갖 부조리를 접할 수밖에 없더군요."

2006년 11월부터 사회창안센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한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89건의 게시글을 올려 '최다 창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택시 안에서 만난 소시민들의 분노, 슬픔, 기쁨을 차곡차곡 수첩에 쌓아 온 결과다. 스스로 "본업이 바뀌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열정을 쏟아 부었다.

"새 지폐를 좀 보세요. 예전 것에 비해 장애인용 점자의 식별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장애인문제부터 교통,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사회 곳곳의 치부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얼마 전 짙은 안개 때문에 발생한 '자유로 30중 추돌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일반 차량도 비상시 자동으로 경고음을 울릴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하면 뒤차에 이를 알릴 장치가 있어야죠."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실려 오는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의 희망 에너지는 끝을 모른다. 3년 전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눔의 택시' 운동을 시작할 때도 김씨는 주저 없이 힘을 보탰다. 택시운전을 통해 버는 수입의 1%를 재단에 기부해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 홍보위원으로 꾸준히 입소문을 내 현재 80여 명의 동료 기사들이 그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2005년에는 굴곡을 겪은 자신의 삶을 담아 〈파랑새〉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바다를 초원 삼아 말 달린다

황재웅 대표가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은 건 1년 전. 지인에게서 희망제작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원을 결심했다.
"큰 도움도 못되는데…"라며 겸손해 하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
예컨대 거리의 어지러운 간판을 아름답게 바꾸는 운동 같은 것을 희망제작소가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STL(Sunhill Transocean Logistics). 매달 '희망의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든든한 후원 회사이다.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한화손해보험빌딩 16층. 사무실 입구를 은은하게 비추는 푸른색 사인보드가 인상적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쉽게 말해서 해운업이죠. 해운 중계, 선박 건조, 물류 대행…. 해운과 관련된 일은 거의 다하는 국제해운대리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글로벌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황재웅 대표(40)가 활짝 웃으며 설명한다. 젊다. 사람도 젊고, 회사도 젊다. 열정과 패기가 느껴진다. 2000년 설립된 STL은 한창 성장세에 접어든 중견업체이다. 목포해양대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한 황 대표는 STL 창립 멤버로 지난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바다와 선박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가슴이 설렌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오대양을 누비는 거대한 배. 그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새겨진 여행자 코드를 자극하는 강력한 자성(磁性)을 지니고 있다. 지구는 사실 '바다의 별'이다. 3억6천만제곱킬로미터. 바다는 대륙을 다 합친 것보다 네 배나 넓다. 그 광활한 바다가 STL이 말달리는 초원이자 무대이다. 바다를 상대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발상엔 남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

"먹고 살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요. 하하. 제 고향이 전남 완도예요. 장보고의 고장이니까 어려서부터 바다를 벗 삼아 살아왔지요. 섬사람들에게는 섬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넓은 데로 자꾸 나가려다보니 바다를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됐네요."

황 대표가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은 건 1년 전. 지인에게서 희망제작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원을 결심했다. "큰 도움도 못되는데…"라며 겸손해 하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 예컨대 거리의 어지러운 간판을 아름답게 바꾸는 운동 같은 것을 희망제작소가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STL은 전 직원이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뜻을 모으고 실천하고 있다. 황 대표는 사회 문제 가운데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선박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선원들의 실태를 잘 알게 되지요. 일이 워낙 위험하고 힘드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거의 없고, 가난한 제3세계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무척 열악한데다 기본권도 보장 못 받고 있지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황 대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들을 돕고 싶어한다. 젊은 사업가로서 그는 골고루 나눌수록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황 대표를 만난 날이 마침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후였다. 그래서 물었다. 해운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

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죠. 삼면이 바다인데, 멀쩡한 바닷길을 놔두고 왜 물길을 따로 파야 한다는 것인지…. 더욱이 내륙에 운하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물동량이 많지도 않아요. 선박 운송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나를 수 있다는 점인데, 운하로는 큰 배를 띄울 수 없어요. 속도도 느리고….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얘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황 대표가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사전에 황 대표에게도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찬성하는 쪽 교수들만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황 대표를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는 거꾸로 가는 꼴이지요."

STL은 국내 최초로 포스코와 함께 JID(Just Intime Delivery)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공되면 포스코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재고 없이 필요한 만큼의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TL은 또 올해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행이나 중계 업무에 더해, 자체 선박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운송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젊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무척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들 해운업에 대해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고,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지요. 회사가 잘 돼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새해 바람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황 대표에게 "대표 덕에 큰 배 한번 타봐야겠네요"라고 농담을 던지자 "화물선이 아니라 크루즈 타셔야죠" 하고 받는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이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는 날을 상상해 보았다. STL이 운행하는 멋진 크루즈를 타는 날을.

››› 희망인턴십

● 종류

- **정시인턴** : 정기적으로 모집해 일정기간 연구원들과 함께 희망제작소의 사업을 수행
- **수시인턴** :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특정사업의 수요에 따라 모집 인턴
- **특별인턴** : 외부 의뢰 또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

● 선발

- **정시인턴** : 매년 6월 / 12월에 선발 (Summer / Winter)
- **수시인턴** : 연중 홈페이지 접수, 봄 / 가을에 수시 모집
- **특별인턴** : 외부 의뢰

● 기간

- **정시인턴** : Winter 인턴십 1, 2월 주중 3일이상 집중 활동, 3월 이후 지속 가능
  Summer 인턴십 7, 8월 주중 3일이상 집중 활동, 9월 이후 지속 가능
- **수시인턴** :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과 시간
- **특별인턴** : 외부 의뢰에 의한 기간과 시간

2007년 함께한 인턴

인턴 5기
- **창안센터** 서지웅 심정아 최승호
- **뿌리센터** 정동혁 전지훈 김유진 이미현 문승희 나진희
- **공공문화** 안혜영 김보경
- **대안센터** 오선영 이은정
- **사무국** 강하나 류세희 박재익
- **소기업발전소** 김민선

인턴 6기
- **창안센터** 김형주 양정화 황애진
- **뿌리센터** 민현주 이창율 최나리 구현자
- **대안센터** 김정욱 박전상 송선하
- **공공문화** 박수미
- **지혜센터** 김고은 박정민 최정인 한동규 신혜정 팔코
- **사무국** 오우식 손지원 제이슨박
- **기획1팀** 최유미 김아름
- **기획2팀** 이하나
- **기획3팀** 이정봉
- **희망아카데미** 류주연
- **소기업발전소** 김영민

인턴 7기
- **창안센터** 박수지
- **뿌리센터** 김가이 강수윤 박아름 박해와 신주영 지민경 이재령 유미
- **대안센터** 한만일
- **공공문화** 안기현
- **지혜센터** 김지현 정수연 한태희
- **기획3팀** 박나은 남윤호

인턴 8기
- **뿌리센터** 김미선 곽보영 이홍령
- **지혜센터** 천새솔 박아영 고종혁
- **기획1팀** 이상훈
- **기획2팀** 장은종 임주현
- **사무국** 반기웅 백정훈
- **재난관리연구소** 이혜나
- **사회창안센터** 김나원 송혜린
- **공공문화센터** 송은정
- **소기업발전소** 이영주 김경숙
- **해피시니어** 조용숙
- **지역홍보센터** 지민경 한지혜 정현진 김성훈 최승주 박아름
- **서울대인턴십 프로그램** 안지혜 이재령 박준성 신푸름

인턴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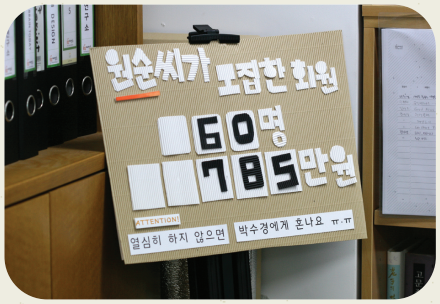
인턴5기 강하나 _ 3개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희망제작소 인턴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회에 대해 알게되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희망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턴5기 신혜정 _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한 정도에 비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희망제작소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턴6기 김정욱 _ 너무 즐거웠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인턴6기 최나리 _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끝나니 너무 아쉬워요. ㅠ.ㅠ

인턴7기 정수연 _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문

김광웅(〈시사인〉 대표,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박경호(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최상용(전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 전 주일대사)

비상임부소장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현(건국대 생명환경과학과 교수)

비상임연구위원

이창은(대자보 발행인), 안종상(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한국멘토링&코칭센터 회장), 김어준(딴지일보 대표), 김성주(사회적기업지원 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기호(성공회대 연구교수)

객원연구(위)원

Suzuki Tessa(호주국립대학 ANU 교수), 강상중(동경대 교수), 현무암(동경대 박사과정), 신동민(주독일 한국대사관 전문연구원), 강정숙(독일녹색당(뮌헨) 여성학 박사), 박순성(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송백석(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오수용(법무법인 정평 미국변호사PSIC팀장), 임정근(경희사이버대학 NGO학과 교수),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조형제(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차명제(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허성우(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성시경(전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김민전(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김인숙(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김인자(홍대건축대학원 졸업), 김수기(현실문화연구 대표), 서정일(서울대 건축과 박사과정 수료), 서동원(김앤장 연구위원), 송성수(경희대 박사과정), 오은정(변호사, 삼양사 재경실 법률고문), 이규연(중앙일보 부장), 이기호(평화포럼 사무총장), 이동규(충남대 회계학과 교수), 이명석(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이영혜(디자인하우스 사장), 전영기(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대화(상지대 정치학 교수), 정범구(전 국회의원), 정지환(시민의신문 부국장), 정호연(다큐멘터리 연출), 한봉호(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한형동(주례연세병원장), 홍선희(서울문화재단 대외협력팀장), 한희정(언론학 박사), 홍숙희(부천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규식(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황상규(환경연합 정책처장), 황한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창안센터

사회창안 시민평가단(아이디어 평가 및 조사단)

김성수(법무사), 김태은(신용회복위원회), 박문수(성균관대 박사과정), 송운용(사회복지사), 양창식(뉴타운개발포럼 사무처장), 유성호(이데일리 기자), 임병해(대학원생), 임재호(순창군 공무원), 정주영(현대자동차 과장), 조성웅(대학생), 한재연(논술강사), 허석현(IT컨설팅 실장), 황혜영(대학생), 박태현(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 변황우(순천제일대학 교수), 이은정(대학생), 조진희(건축설계), 김대명(대학생), 김병학((주)새암애드 대표), 김선미(대학생), 김윤희(회사원), 배상민(대학생), 배효원(대학원생), 손홍식(장기기증 홍보대사), 송복헌((주)에스오넷 대표이사), 신비인(대학생), 윤석호(취업준비), 이나라(대학생), 이현승(템사모 카페지기), 임진택(회사원), 장동주(대학생), 최미경(대학생), 한태희(대학생)

아이디어 노리단(아이디어 퍼슨들의 모임)

김성수(회사원), 김현성(공공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김형권(택시운전사), 김형주(대학생), 류동훈(전남광주행복발전소 사무처장), 마용철(목포시민제안운동 '마음' 대표), 문인근(아름다운재단이 위촉한 1% 100인 위원), 윤순금(새봄 공부방 운영), 윤철수(전 서산시 의원), 이영수(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본부), 이은경(대학교 조교), 장연희(시민환경운동가), 정대철(대신네트워크), 최윤경(프리랜서 디자이너), 최윤혜(살림가), 호종훈(대학생)

사회창안 서포터즈(아이디어 현실화 도우미)

권정순(변호사), 김재관(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사협력팀),김정우(한국일보 기자), 김타균(국회의원 보좌관), 류동훈(전남광주행복발전소), 문승원(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사협력팀), 박혜령(KBS 피디), 시명준(중소기업 대표이사), 안준현(한국일보 기자), 양희준(국회의원 비서관), 이은우(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아이디어센터), 이현정(한국일보 기자), 임상렬(리서치플러스 대표), 임형택(익산희망연대 사회창안센터), 정왕룡(김포시의원), 조형수(변호사)

호민관클럽(사회창안 국회의원 모임)

김근태(통합민주당), 김양수(한나라당), 김재홍(통합민주당), 김정권(한나라당), 노회찬(진보신당(가칭)), 손봉숙(통합민주당), 우원식(통합민주당), 원희룡(한나라당) 유선호(통합민주당), 유승희(통합민주당), 이영순(민주노동당), 정봉주(통합민주당), 제종길(통합민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홍미영(통합민주당, 호민관클럽대표)

그밖에 사회창안센터와 함께 하시는 분

송종대(교촌 농촌체험학교), 전달양(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

협력단체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아이디어센터, 익산희망연대 사회창안센터,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회창안프로그램

뿌리센터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권혁장(대구경북연대회의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영복(문우서림 대표), 박정아(일본전문가),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서동원(공정거래위원회 퇴직 법학박사), 서정훈(광주시민협 사무처장), 서희원(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유문종(매니페스토추진본부 대변인), 유정배(춘천참여연대 사무처장), 육성완(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윤영선(전남연대회의 사무처장), 이두영(충북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은주(전 수원시의원), 이지훈(〈제주의소리〉 상임이사), 이창용(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국장), 이채연(광주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국장), 조유묵(경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권필상(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 김언호(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김태근(시민포럼 사무국장), 류동훈(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처장), 노현승(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박정운(사진작가), 안진권(대구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이광영(충남 친환경클리닉센터 소장), 이준경(하천연구센터 사무국장), 임승호(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명섭(청정강원21 사무처장), 정승윤(연구공간 클리나멘), 강현수(중부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고호성(제주대 법학부 교수), 권선필(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미경(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병수(전주한옥생활체험관장), 김선태(대전시민환경연구소장), 김선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연구원), 김원동(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김유임(전 고양시의원) 김재승((사)하천사랑운동 대표), 김재용(게이오대학 박사과정), 김종달(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종현(목포시 청소년수련관장), 김창선(울산경실련 사무처장), 김창완(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택천(지방의제21전국협 사무총장), 김진태(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문창식(대구환경연합 집행위원장), 박두규(순천YMCA 사무총장), 박상안(중앙대 경영대학원 박사), 박승주(중앙인사위원회

위원), 박일선(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재묵(대전환경연합 공동대표), 박주석(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환용(연안보전네트워크 상임이사), 배영대(중앙일보 문화부차장), 백승대(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소진(연세대 강사), 신명식(건치협회 회장), 안명균(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봉록(지방자치연구소 박사), 양세진(시민리더십센터 소장),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위임대표), 오영임(중앙대 화학과 강사), 오재일(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이근수(경희사이버대학 부총장), 이상구(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선(충남연대회의 대표), 이상점(광주YMCA 사무총장), 이성균(울산대 사회학 교수), 이정식(전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대표),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이필훈(㈜태두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장수찬(목원대 정치학 교수), 전성환(한국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정갑식(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달영(순천시의원), 정보연(KYC 공동대표), 정수호(인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정준호(산업연구원 연구원), 조승헌(생명평화연구소장), 차수철(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차윤재(마산YMCA 사무총장), 천준호(KYC 공동대표), 최병두(대구경북환경연구소 소장), 최병진(한국자연환경연구소 소장), 한면희(녹색대학 운영위원장), 한영혜(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례연구소

고문 박경호(전 법무사협회장)

소장 이기우(인하대 법학과 교수)

운영위원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김한주(민변 부회장, 동서법률사무소),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송상교(민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송계호(전 정선군의회 의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후원기업 김&장 법률사무소

농촌희망본부

소장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운영위원

김덕수(한국마사회 비서실장), 김준규(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일(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배영호(배상면 주가 대표이사),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신동환(KBS 플러스 사장), 오정미(오정미 푸드아트인스티튜트 대표), 오현석(지역아카데미 대표), 이상용(한국농촌공사 지역종합계획이사), 이태근((사)흙살림 회장), 이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두철(다리 컨설팅 대표), 주형로(홍성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대표), 전정희(농수축산신문 발행인), 천호균 (주식회사 쌈지 대표이사)

일본희망제작소

하야시 야스요시(일본희망제작소 이사장,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나카가와 슈이치(메이지대 상학부 교수), 류혁수(요코하마국립대 대학원 교수), 무라카미 쇼오이치(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 도쿄 전무이사), 문경수(리츠메이칸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바토우 타다하루(카고시마국제대 경제학부 교수), 박춘섭(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전공 박사과정), 스가와라 토시오(지방자치종합연구소 연구원), 시게모토 나오토시(류코쿠대 경영학부 교수), 시마무라 나오코(릿쿄대학 대학원 21세기사회디자인사회디자인연구과), 시오다 미에코(의원 비서), 오다기리 마사타케(카와사키시청 공무원), 오요베 카츠히토(무사시노미술대 시각전달디자인학과 교수), 오학수(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요코타 카츠미(생활클럽생활공동 조합 · 카나가와 명예고문) 이영근(츠쿠바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과 외국인연구원), 쿠로다 케이코(메세대 강사), 키쿠치 켄(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히로세 토시아(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대표)

고문

사무국장 깃카와 준코, 선임연구원 강내영, 위촉연구원 한연미

희망아카데미

신창현(전 민선1기 의왕시장), 정보연(도봉시민회 대표), 이명석(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경(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민관협력포럼 뉴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갈등포럼 공동대표), 이기호(평화포럼 사무총장, 정치학 박사),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양세진(한국시민리더십센터 소장), 김현성(공공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김유임(전 고양시의회 의원), 김찬호(성공회대 외래교수)

공공문화센터

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유석연(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운영위원 김상길(주 에이텍 종합건축사무소장), 류제홍(전 도시갤러리추진단 책임연구원)

대안센터

김재현(생명의숲 사무처장), 서용석(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KT미래연구소), 김경묵(추쿄대 교양학부 준교수),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상준(경희대NGO대학원 교수), 김서진(6 · 15선언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서울지역상임집행위원장), 김성현(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경제학박사), 김주영(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나효우(아시아지역운동연대(LOCOA) 사무총장), 손명세(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신필균(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대표이사), 오수용(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온대원(열린정책연구원 통일외교안보실 책임연구원), 이덕호(성균관대 경제학부 박사), 이종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팀장), 이종수(중앙대 지방행정연구소 연구부장), 임성호(서강대 교수), 정태완(행정학 박사), 정희진(연세대 강사), 주은경(KBS 구성작가), 최성호(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하승창(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허만형(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황윤원(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간판문화연구소

소장 최범(디자인 평론가)

상임고문 안상수(홍익대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고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토마사루(큐슈대학 예술공학부 교수),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영혜(디자인하우스대표), 한호림(꼬리에꼬리를무는사인 저자)

운영위원

김영배(주 이디알엘케이 대표), 박삼철(서울시도시갤러리추진단장), 우신구(부산대 건축학부 교수), 전효관(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연구위원

곽명희(큐슈대학 예술공학 박사), 김경균(정보공학연구소 대표), 김도년(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명환(계원조형예술대 전시디자인과 교수), 김병수(전주 공공작업소심심 소장), 김상규(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성홍(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김영미(숙명여대기업정보디자인 센터 책임연구원), 김영철(AGI 대표), 송주철(송주철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 엄혁(주 얼트씨 대표), 윤혁경(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과장), 이명희(동서대디자인과 교수), 이정혜(베가 스튜디오 대표), 임상렬(리서치플러스 대표), 장영화(법률사무소 미담 변호사), 조주연(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한재준(서울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허갑중(사단법인 한국관광정보센터 소장), 현태준(신식공작실 실장)

세계공원연구소

자문위원

안동만(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이영무(홍익대 조경학과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정명원(홍익대 도시대학원 교수),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객원연구위원

김영복(문우서림 대표), 박철수(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성종상(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팀장), 이무용(전남대 교수), 이상혁(평택대 음대 교수), 조경진(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홍성태(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객원연구원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순분(대우건설 조경부 차장), 김영현(공공문화개발센터 유알아트 대표), 남기준(월간〈환경과조경〉 편집장), 박동현(실험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정한(단국대 조경학과 교수), 신동석(D-Square 대표), 오민근(문화체육관광부 전문위원), 오충현(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윤인숙(토지공사 연구원),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이수학(나무 대표), 이응경('이장' 부설 환경과사람 소장), 이주연(한겨레 기자), 이중재(문화우리 사무국장), 정지인(동서조경대표), 조영철(GS건설 조경부 차장), 최승호(쌔즈믄 대표), 최재균(월간〈포토넷〉 대표)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진

유시주(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작가), 이희영(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정병호(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 이수정((재)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김경옥(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찬호(성공회대 교육인류학 외래교수), 박소진(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송기찬(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연구원), 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 교수), 이민경(고려대 교육학과 강사), 이부미(경기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수광(이우학교 교감), 이주영(송파초등학교 교사),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유성(서강대 교육학과 교수), 정진웅(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진헌(한양대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현병호(도서출판 민들레 대표), 조현상(한양대 문화인류학과 학생),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고이경(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 소병천(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손성희(생태지평 연구원), 김귀옥(한성대 교양학과 교수),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홍민(동국대 북한학과 연구원),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임정희(연세대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고재란(문화기획자), 홍현숙(설치미술가 서울시립대 강사), 이광준(문화기획자 도시갤러리 큐레이터), 박미경(여성문화연구가, 前 여성사전시관 학예실장), 김령은(문화기획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삼는 녹색교통운동 모임 '발바리' 회원), 이수영(설치미술가, '기록-증명'展 전시), 김진원(북디자이너), 박현우(시각디자이너, 사진작가), 이원재(문화연구가, 문화연대 공동 사무처장), 송수연(문화기획자,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팀장), 이승희(문화기획자,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 조범준(문화기획자,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 구수희(문화기획자, 前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 최민섭(SUV 교수 부동산학), 강민석(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김태섭(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남영우(KB 국민은행 연구소, 시장연구실 책임연구원),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대훈(아레나 사무처장), 이정옥(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Mohiuddin Ahmad(성공회대 인터아시아석사과정 주임교수), Francis Loh(아시아개발문제 연구자), 이기찬(평화박물관 추진위), 주성수(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선미(서울여대 바롬교양대학 전임강사), 정규호(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 조성미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박사과정),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정향(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강은애(민주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이근행(모심과 살림연구소 사무국장), 신필식(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하만조(성공회대 석사과정), 홍덕화(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두식(경북대 법학과 교수, 변호사), 김종철(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조용준(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후원업체 담당자

황정은(삼성사회봉사단 부장), 국좌호(삼성사회봉사단 과장), 염종선(창비 인문사회출판부 부장), 안병률(창비 인문사회출판부 팀장)

자치재정연구소

소장 이재은(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부소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자문위원

권선필(목원대 행정정보학과 교수), 강인재(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이동규(충남대 회계학과 교수), 조연상(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최명숙(여성민우회 대표)

운영위원

곽채기(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기수(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상근 집행위원장), 김태근(울산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김해몽(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남황우(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종훈(전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유정배(춘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지문(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최병호(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허윤범(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홍은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객원연구위원

강영모(전 고양시의원),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상무), 오미덕(광주참여자치21 예산센터장, 전 광주북구의원), 성시경(경제학 박사과정)

객원연구원

박숙경(부산환경련 연구원), 박항주(생태지평 연구원), 이경미(참여연대 간사), 진경아(천안복지세상 사무국장)

해피시니어

단장 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문위원

임종대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명섭 (행복나눔재단 사무처장)

해피시니어 대한생명 TFT 위원

이은홍 부장(홍보실), 박진 차장 (홍보실), 황주환 차장 (IT), 박종우 과장 (경제연구소), 채은주 과장 (채널기획), 황원하 과장 (인사과), 김명환 대리 (홍보실)

해피리포터

고서정, 김미지, 김해인, 김혜영, 박대달, 박민호, 박선민, 박혜민, 여정숙, 유혜선, 윤다은, 윤미라, 윤새별, 은지원, 이민애, 이민영, 이석준, 이윤재, 이은경, 이재흥, 이주영, 이환희, 이효정, 장정보, 전선율, 정봄, 정주연, 최효정, 함수린

후원기업 대한생명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이재은(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운영위원

김겸훈(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한국정보문화진흥원 행정학과 교수),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덕근(국립방재연구소 토목공학과 교수),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백민호(강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성기환(서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영수(제주대 의학학과 교수), 송철호(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양기근(경남발전연구원 행정학과 교수), 오재호(부경대 기상학과 교수), 위금숙(위기관리연구소장), 유현정(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명선(이화여대 보건교육학과 교수), 이왕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열(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호동(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남희(서울여자간호대 간호학과 교수), 한동우(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주최 및 후원기관

(사)한국정책연구원, 강릉시청,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관동대 방재연구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대전시민환경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이재민사랑본부, 인천대 위기관리연구센터, 전국재해구호협회, 제주대 의과학연구소, 충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청남도, POSCO, 한국행정DB, 행정자치부

세계도시라이브러리

명예관장 서대원(광운대 석좌 교수, 전 헝가리 대사)

기획자문위원회

김규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실 문화정책팀 책임연구원), 김승환(동아대 도시계획학부 조경학과),김재현(생명의숲 가꾸기국민운동 사무처장), 김태만(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김한준(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 이사),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승현(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서일윤(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선현주(고려대학교 MBA 매니저), 신현경(영산대 교수), 오민근(문화관광부 공간문화팀), 오영임(전 태평양 수석연구원), 이동희(한국중앙연구소 연구원), 이미홍(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이윤식(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숙(음악박사), 이인식(습지와새들의친구 대표), 임동근(공간연구집단 대표), 임재택(부산대 사범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장희정(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부 교수), 전영훈(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정혜진(영남일보 기자), 최정화(전 〈favor〉 편집장), 최주영(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옥경(한국과학재단 상임 감사, 전 해운대 구청장), 양도식(UCL the Batlett 도시디자인 튜터)

전문가 필진

김정후(LSE 도시계획 튜터), 정기용(건축가, 성균관대 석좌교수), 승효상(건축가, 이로재 대표)

특파원/ 통신원

우경봉(교토대 경제학대학원 박사과정), 박희숙(도쿄대 대학원 사회학전문분야 박사과정), 김재용 (게이오대 정책미디어대학원 박사과정, 게이오대학 매니페스토 연구회 책임연구원), 이홍천(게이오대학 정책미디어연구과), 김상훈(미국 뉴욕 특파원), 정호현(다큐멘터리 작가), 정현우(여행통신원), 황소라(아프리카 현지 LG 전자 직원), 박은덕(호주 시드니종합법률사무소 대표), 권기범(변호사, 스트라스필드 시의원), 김경묵(나고야 츄쿄대 교수), 라일경(츄쿄대 전임강사), 오수영(에콰도르 관광분야 KOICA 활동), 손정원(UCL 도시계획 분야 Lecturer), 신혜란(UCL 도시계획 분야 Lecturer), 김상희(UCL 도시디자인 박사과정), 박준(UCL 도시계획 박사과정), 홍세진(중국 천진 통신원), 정수연(홍콩 통신원),김혜영(미국 워싱턴 DC 특파원), 허준영(독일 베를린 특파원), 김옥예(중국 상하이 특파원), 최정인(영국 노팅험 통신원), 정창무(여행통신원), 김승균(캐나다 특파원)

누리술래단

[1기] 김입지, 남궁옥, 선현주, 송정규, 윤혜영, 이광호, 임선영. 장혜진, 전하얀, 정범진, 정호현, 조현우, 최혜진, 홍수용, 오영임 [2기] 구수연, 이성은, 정수연, 한태희, 김순남, 허준영 [3기] 강은미, 김동희, 김성완, 김명정, 김정원, 오상훈, 이윤진, 장 형, 정서영, 정유미, 정은지, 조경식, 조선희, 조은진, 황유미 [4기] 김애연, 김영은, 박하나, 서연정, 이상훈, 이선경, 이승우, 이지영, 천새솔, 최희진

협약단체

국토연구원, 문화우리, 삼성경제연구원, 생명의숲국민운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오마이뉴스, 재외동포재단, 파주출판문화재단, 한겨레신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기업발전소

고문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호(유한대학장), 안경태(삼일회계법인 대표), 오세정(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이영혜(디자인하우스 사장), 이희범(무역협회장), 제프리 존스(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용희(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운영위원

권영랑(비즈리즈컨설팅 대표), 김정헌(공주대 미술교육 교수), 이일규(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이전영(포스텍기술투자 사장), 신완선(성대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한정화(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손용석(인컴브러더 사장), 서혜숙(법무법인KCL 변호사), 김용운(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우광제(유리안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해완(로앤비 대표), 노규성(선문대 경영학부 교수), 설문수(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창현(코트라 국가브랜드 관리 담당관), 양종관(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안현주(한국의장 대표), 홍성철(월간 〈쿠켄〉 대표), 장하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배수열(mmmg 대표), 진용주(api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호혁(1300K 대표), 박종오(기업기술연구원장), 송덕용(공인회계사), 강희원(딜로이트 회계법인 부대표), 문규학(소프트뱅크코리아 사장), 김경희(서울시 문화재위원), 박영래(농협중앙회 여신관리부장), 최세규(한국신지식인협회장)

서포터즈

강현화(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 김영기(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두(디자인두 대표), 김종국(사랑의집 원장), 김종면(특허법인 아이엠 대표변리사), 김태석(풀무원연구소 센터장), 남궁우진(GE Money 차장), 문용은(신라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박종호(에듀머니 팀장), 방기천(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안병권(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팀장), 오현석(가람경영자문 대표 공인회계사), 유성호(이데일리 창업전문기자), 윤성만(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소장), 이관구(포도asset), 이승희(국립금오공과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임기흥(광주여자대 비서경영학과 교수), 임상렬(리서치플러스), 장주화(전 천일냉동 경영실장),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조선구(나사렛대 경영정보학 교수), 조재완(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 교수), 조태민(푸드포럼 대표), 조현주(용인송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교수), 최진만(제이엠 컨설팅 대표), 하태현(우석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협력 기관/기업

하나은행(대표 김종렬), 한국디자인진흥원(대표 이일규), 인터파크(대표 이상규)

후원회원

청주의료원, (주)리서치플러스, STL, 강기석, 강미미, 강병수, 강성옥, 강승균, 고광희, 곽현지, 국주영은, 권선주, 권영찬, 권오정, 권혁도, 김경빈, 김광식, 김기수, 김기태, 김남규, 김동식, 김동완, 김미경, 김민국, 김복래, 김상규, 김상영, 김상조, 김상진, 김서령, 김수열, 김수이, 김연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철, 김용, 김우영, 김유임, 김은옥, 김익태, 김재원, 김종국, 김종기, 김주정, 김지나, 김지현, 김진묵, 김진애, 김진현, 김철호, 김청호, 김충수, 김태선, 김태우, 김태한, 김태효, 김향숙, 김형권, 김형석, 김혜련, 김혜영, 김홍길, 김휘국, 남재석, 남정수, 노금선, 노동섭, 류동훈, 문인곤, 문인근, 문충선, 문현성, 민상기, 민성원, 민영창, 박경호, 박규민, 박명숙, 박상원, 박상준, 박상진, 박상혁, 박수교, 박순빈, 박순성, 박승준, 박연석, 박영옥, 박용성, 박용팔, 박원순, 박유경, 박재영, 박정자, 박준규, 박중록, 박지홍, 박찬응, 박창기, 박청자, 박홍규, 박희숙, 반현수, 배병우, 백기수, 부윤경, 서경주, 서은선, 서정한, 석진규, 선학수, 성명환, 성영실, 성용모, 손덕환, 손민진, 손수경, 손진운, 송경미, 송기수, 송래형, 송병순, 송수완, 송우달, 시명준, 신미숙, 신연숙, 신중섭, 신철경, 신혜란, 신호상, 신홍익, 심상권, 안기대, 안형주, 안혜란, 양동화, 양문실, 양민영, 양승철, 양진주, 양춘승, 오경근, 오대영, 오동운, 오령, 오봉훈, 오상현, 왕지옹, 우상일, 원귀영, 원기준, 원응호, 유귀숙, 유세종, 유수림, 유수빈, 유영만, 유영미, 유윤빈, 유진빈, 유현숙, 윤성진, 윤순금, 윤영근, 윤영진, 윤용석, 윤인숙, 윤혁경, 윤희, 이경민, 이귀보, 이남진, 이남훈, 이동준, 이동출, 이동환, 이명곤, 이무열, 이문구, 이민영, 이상미, 이상헌, 이상현, 이석훈, 이선화, 이성은, 이영수, 이영욱, 이옥경, 이옥형, 이용규, 이용신, 이용자, 이원희, 이인숙, 이재민, 이전영, 이정기, 이정자, 이종률, 이지훈, 이진아, 이창식, 이철영, 이춘형, 이학희, 이현승, 이현심, 이호동, 이호희, 이후술, 이희민, 이희석, 이희정, 임범진, 임종두, 임학상, 장재욱, 장창덕, 장혜경, 전금희, 정건화, 정낙섭, 정남교, 정륜진, 정만녀, 정목현, 정보윤, 정승우, 정은옥, 정을호, 정일영, 정종덕, 정진화, 정찬용, 정현숙, 정희정, 조강복, 조민경, 조성대, 조수정, 조수현, 조영민, 조영수, 조용준, 조은아, 조진영, 조희연, 지은희, 차문영, 차희상, 채영수, 초당 김성수, 최명철, 최사욱, 최연희, 최영선, 최영훈, 최원일, 최을영, 최재석, 최정돈, 최현숙, 최혜월, 하상호, 하진연, 하찬호, 한동우, 한수길, 한영자, 한해연, 한형동, 허승량, 허옥경, 허윤화, 현경일, 현관명, 현무환, 홍상표, 홍승현, 홍지명, 황광연, 황기룡, 황상환, 황선혜, 황순영, 황효진

[뿌리총서2] **1% 너머로 보는 지역활성화**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는 2005년 4월부터 납세자가 NPO 등의 시민활동단체를 선택하여 자신이 낸 개인시민세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시민활동단체지원제도'(통칭 '1퍼센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현실화한 미쓰유키 시장이 직접 계획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생각을 기술하였다.

[뿌리총서3] **일본형 매혹도시를 만들다**

이 책은 일본의 도시를 정말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내 좀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녹음이 가득한 도시'를 목표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도시 만들기 비즈니스의 미래상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뿌리총서4]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하고,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의 지역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 책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부터 주변관계, 사례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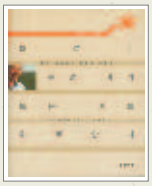
[우리시대희망찾기1]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30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체감지수를 알아본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를 시작으로 '민주화와 양극화, 제도와 사람, 사익과 공익, 다수자와 소수자, 사상과 일상, 소통과 갈등, 정당과 지방 정치, 성역과 특수구역'까지 총 9가지 주제로 나누어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희망을여는사람들1] 토종벌 총각 김대립

수십만의 직원들 둔 기업가

농촌 총각 김대립의 특별한 벌 사랑 이야기. 김대립은 앉으나 서나 벌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벌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토종 양봉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김대립씨는 인공분봉법, 특수보온벌통, 무지개 꿀 등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꿈꾸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그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희망을여는사람들2] 김제 남포리의 상록수 오윤택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한다

오윤택씨가 살아온 삶을 보면 영화 속 주인공 홍반장이 떠오른다. 남의 집 궂은 일에 묵묵히 팔 걷어 붙이고 나서는 오씨. 무학(無學)이 가슴에 맺혀 동네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만들고 문고기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운 일이며, 시골 작은 마을에 정보화센터를 만든 일까지 그의 삶은 '지역에서 터를 박고 삶다운 삶을 사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형이다. 종교인보다 더욱 종교적인 그의 삶은 보는 이를 숙연하게 만든다.

[지역희망찾기1] **송산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2007년 3월, 장흥 송산마을에서는 30년 만에 대보름놀이가 부활했다. 2005년 송산마을의 80년 된 한옥 한채가 젊은 문화인에게 양도돼이 '문화공간 오래된 숲'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마을 안팎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되면서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보름놀이까지 이어졌다. 팔순 노인부터 초등학생 아이까지 마을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아 치르고 이뤄낸 마을의 작은 역사(歷史)가 담겨 있다.

[지역희망찾기2] **이천동 도시의 옛 고향**

프로젝트 모임 '소풍'이 활동하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은 재개발에 대해 80퍼센트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풍'은 성장과 파괴를 거듭하는 한국의 도시계획 현장에서 도시의 역사를 남기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천동의 오늘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 책은 전국의 많은 지역에 문화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구 이천동에서 옛 고향의 모습을 찾아보자.

[지역희망찾기3] **우리 시대의 커뮤빌더**

이 책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떠오른 커뮤니티 빌더(커뮤빌더)에 관한 보고서다. 대안가치, 풀뿌리, 생활운동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시민운동 사례를 찾아 나선 저자가 평범한 시민으로 출발해 시민운동의 중심에 선 네 명의 커뮤빌더를 직접 만났다. 작은 실천이 작은 변화를 불러오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구어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커뮤빌더들의 진심 어린 희망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지역희망찾기4] **연안테제, 연안사회를 조직하라**

시화호 운동에 참여하면서 연안의 가치를 깨닫고, 연안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실질적인 연안사회 발전모델을 계획하기 위해 중앙중심주의와 땅의 관점에서 벗어나 바다와 해양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연안유역권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테제는 연안과 해양을 육상의 주변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부로 자리잡게 하고, 연안사회를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자원순환형, 지역중심형 지속가능 사회로 발전시킨다.

[지역희망찾기5]
치유와 키움, 기적의 풀뿌리 주민운동 체험기

도봉시민회라는 한 작은 풀뿌리 주민운동 단체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단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대립과 계몽이 아니라 '치유와 키움'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도봉시민회가 말하는 새로운 풀뿌리 주민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희망찾기6]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 우리동네 에너지 농부 이야기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홍성, 태양광 발전기가 늘어나고 유채기름으로 경운기와 버스를 굴리는 전북 부안, 한국의 프라이부르크를 꿈꾸는 태양 도시 광주, 재생가능에너지 보물섬인 제주도. 이 책은 동네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꿈 같은 일이 바로 내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있는 내몽골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국내외 곳곳에서 에너지 희망을 찾아다니는 부지런함이 눈길을 끈다.

[지역희망찾기7] **순천만, 시민사회 물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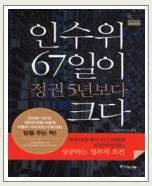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물결이 용솟음친 순천시 이야기. 순천 시민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여덟 가지 사례로 나눠 들려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기록해야 한다.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순천을 살고 싶은 도시, 살 만한 고장으로 만든 지역 주민의 땀과 지혜를 담은 기록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희망찾기8] **5 · 18로 끓여먹는 얼큰한 문화도시**

광주는 요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려고 열심히 준비중이다. 광주 시민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책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거는 기대와 염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광주의 자부심이자 아픔인 5 · 18민주화운동 정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가 광주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이 책에 그 답이 들어 있다.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

유쾌한 인생 반전을 가져다주는 생각습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상상력이 경쟁력이 된 시대. 희망제작소에 제안된 시민들의 아이디어 중 90가지를 소개하고, 박원순 변호사가 직접 해외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세상을 바꾸는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 사례들, 그리고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유명한 아이디어뱅크 전유성과 박준형의 생활 속 아이디어 제안이 담겨 있다.



[공공리더를위한지혜총서]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

인수위의 중요성을 처음 일깨운 책. 국정운영의 소중한 지혜를 새로운 정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 · 출판되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주요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5년의 국정운영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 67일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 인수위원회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공공리더를위한지혜총서]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국가를 경영하는 'CEO 중의 CEO'인 대통령직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돌아봄으로써 이 시대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은 진정 어떤 지도자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믿을 만한 보좌진의 선발과 각료 임명을 비롯한 인사 원칙, 국회나 언론과의 관계 정립 방법, 대통령 부인의 처신 요령까지 대통령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뉴얼이 섬세하게 정리돼 있다.

[희망제작소 창립기념 국제세미나]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찾기

영국, 일본,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통해 희망제작소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알차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 보는 자료집이다.

[2006 시장학교 자료집] **우리시대 시장학**

성공하는 지방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장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준비된 시장만이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도덕성과 투명함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장학'이라고 부른다.

[희망모울7]

한미FTA는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추진의 시급성만을 강조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 희망제작소는 한미FTA가 체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세계공원연구소 창립기념행사]

GReEN FAnTASY 문화로 풀어보는 공원 이야기

세계공원연구소는 공원 속에 삶을 심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중심에 공원을 배치하고 싶어한다. 단순한 녹색 공원들을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관리 실태와 세계 공원들을 연구하고 지역의 공원 배치와 디자인을 컨설팅하고 있다. 바람만 불어도 풀들이 생명의 싹을 틔우듯, 주변의 무미건조한 공원에서 희망을 건진다.

[조례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지방자치, 이제 조례를 이야기하자

조례는 정말 많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서 만든 조례는 많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뜻을 모아서 만든 조례도 흔치 않다. 대부분의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판박이로 찍어내듯 제정되고 있다. 좋은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조례만 제대로 제정해도 지역이 바뀐다. 좋은 조례가 세상을 바꾼다.

[희망모울9]

천재 그리고 인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정부의 수해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진단한 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수해를 직접 겪은 이재민,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성공적으로 수해대책을 수립한 지자체의 공무원, 기업 수해복구 참여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희망모울11 한 · 일 컨퍼런스]

한 · 일 '지역만들기'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지역발전은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희망제작소가 마련한 한 · 일 컨퍼런스는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에서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의견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이다.

[2006 순천시공무원학교]

나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공무원입니다

도전과 변화로, 순천의 비전만들기! 순천은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아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순천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식, 기적의 도서관에서 보여주는 교육열, 세계 5대 습지 중의 하나인 순천만, 그리고 낙안읍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인적 · 물적 자원이 풍부한 도농복합 도시이다. 순천시 공무원학교는 순천시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되었다.

[2006 남양주시청 공무원학교]

나는 명품으뜸도시 공무원입니다

창조와 소통으로, 남양주의 비전만들기! 남양주는 지역의 균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양주로 비약해야할 시점이다. 남양주시청 공무원학교는 지역사회의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남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지를 찾아가는 거버넌스 구축의 시험대이다.

시티다큐 도시를 기록한다

도시경관 기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된 아현지구는 재래시장과 골목길, 계단 등 자생적인 도시의 모습을 아직까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집은 2006년 8월부터 약 두 달에 걸친 작업의 초보적인 결과물이지만, 다음 작업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간판문화연구소 창립기념자료집]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도시

간판은 문화다. 간판은 사회적 기술의 발현이자 문화적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간판은 도시이다. 간판이 모이면 가로의 경관, 지역의 이미지, 도시의 정체성을 만든다. 간판연구소는 망가진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되살린다. 간판을 바꾸면 도시가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면 사람이 숨쉴 수 있다. 간판문화연구소의 출발은 이처럼 소중하다. 창립기념 자료집에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이제는 자치재정이다

지역의 재정에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분권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핵심에는 '2할 자치'로 불리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있다.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주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가 극히 미약하여 자치를 말하기 어렵다. 이제 자치재정은 지역의 살림살이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어야 한다.

[2007 의원학교 자료집]

내일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이유 있는 선택

나눔과 소통으로, 지방의회의원 비전 만들기! 지금 지방사회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전환기에 서 있다. 나아가 변화의 조류를 미리 파악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거듭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희망제작소 의원학교는 전국의 지방의회의원들과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함께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2007 공무원 주제학교]

나는 우리 시·군·구의 교육플래너입니다

지자체의 공무원 교육훈련과 혁신분야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플래너 워크숍. 이 과정은 교육전담공무원들의 교육기획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기획돼야 하는지, 그 수요의 분석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교육현식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자료집]

재난을 부르는 재난관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다양한 구조물과 시스템들이 오히려 인간을 재난 속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에 관한 예방과 대비, 복구 및 지원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재난관리연구소는 향후 우리나라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점검하고 현실에 근거를 둔 실용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산출하고자 한다.

[제1회 간판디자인학교 자료집]

간판, 디자인을 배우다

파주시, 홍익대학교, 아름지기,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간판디자인학교(장소 : 홍익대학교) 자료집. 파주시와 경기도 일대의 간판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간판디자인 학교는 간판을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공간과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간판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7 순천시 공무원학교 자료집]

나는 순천시 희망 Creator입니다

희망순천 2020 마인드교육. 이번 순천시 공무원학교는 희망순천 2020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과 순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견인차가 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농촌희망본부 창립세미나]

농촌부활의 시대를 연다

농업문제는 농민과 일부 농업관계자 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들과 작은 지원의 손길이 모여 농촌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농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잘 담겨 있다.

[2007 제1기 행복설계 아카데미]

NPO,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계로의 초대

행복설계 아카데미는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참여해 우리사회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퇴직자는 단지 직업에서 물러난 사람일 뿐이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꾸미고 싶은 '행복시니어'들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2007 제1차 NPO리더 희망워크숍]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희망위크숍은 전국 NPO 리더 45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비영리단체의 가장 큰 동력인 '사람'에 대해 리더들이 올바른 관점과 철학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퇴직자들의 참여 가능성을 넓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클리닉 창립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논한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참여에 있다. 많은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민주주의, 더 작은 민주주의, 더 소소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체는 엘리트 계층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어야 한다.

[2007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심포지엄]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1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 자료집. 특히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퇴직자 실태 및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들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고령 퇴직자의 삶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이제 공직자들도 사회창안에 나섰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창의 혁신 추진반'을 만든 노원구청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며 직접 느꼈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크고 작은 생각들을 모았다. 그 결과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53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아울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20가지 등 총 73가지 사례를 모았다.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사회창안은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들로 가치를 더했다. 주민참여형 행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시대 희망찾기 교육영역 심포지엄]

교육문화,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

교육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문제의 해법을 주로 전문가들의 교육공학적인 정책논의를 통해 마련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우리 교육의 벌거벗은 모습을 어린 아이처럼 낯선 눈으로 바라보고 천진한 마음으로 '문화적' 해법을 찾고자 한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돋보인다.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

좋은 준비 좋은 정부

학계와 정계, 언론계의 다양한 전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 자료집. 인수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인수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렴한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등 인사에도 관여한다. 인수위가 주어진 67일 동안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

일본지역만들기 부화장을 가다

일본지역만들기 현장방문보고서. 도쿄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지역만들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특히 내각관방 산하 지역재생진실과 총무성, 그리고 각 지역의 공공단체가 주 회원인 지역활성화센터와 도시-농촌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여러 기관들을 통해 일본에서의 지역만들기를 지원하는 제도나 각종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

[해피시니어프로젝트]

중장년 퇴직자의 비영리단체 참여에 관한 연구

이번 조사는 NPO에서 능력있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 퇴직자의 활용이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NPO와 퇴직자간의 연계가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NPO 관점에서 과연 이들 퇴직자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떤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중장년 퇴직자의 비영리단체 참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시대재난관리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조사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종 재난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대응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성공적인 재난관리의 핵심은 철저한 대비노력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희생자와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활동이며, 그 결과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므로 전문적인 초기대응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우리시대재난관리프로젝트]

재난관리 관련법령 및 관련기금 운용의 효율화 방안

우리나라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 소방방제청과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과 같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현행 재난관리 행정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시대재난관리프로젝트]

재난관리 자원봉사자에 관한 수요 및 필요역량에 관한 기초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련 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6년 수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수요 및 필요역량을 분석하여 재난관리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코자 한다.

[우리시대재난관리프로젝트]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재난관리서비스 제공 및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재난관리에 대한 시각이 행정편의적 서비스 공급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시대재난관리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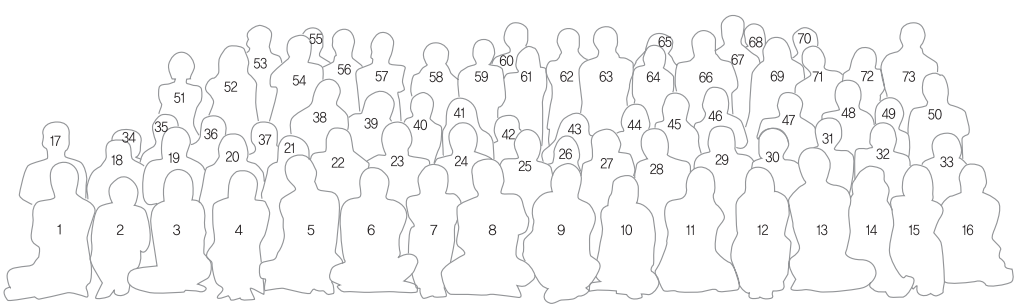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수립방안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 교육, 훈련 등 전문성 재고,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현장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수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지휘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발생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도 볼 수 있으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구입, 열람이 가능합니다.

Tel. 02-3210-0909

희망을 가꾸는 사람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01 **김달수** 뿌리센터 센터장
02 **송경희** 지역홍보센터 판매장
03 **이선화** 지역홍보센터 관광안내
04 **황명화** 기획2팀
05 **이근행** 지역홍보센터 전산운영
06 **김정구** 지역홍보센터 매장매니저
07 **김준호** 기획1팀
08 **위평량** 대안센터 연구위원
09 **조종희** 기획1팀
10 **오여주** 사무국 회계
11 **김현미** 희망아카데미
12 **강가람** 희망아카데미
13 **이재홍** 대안센터 해피시니어
14 **박수지** 지역홍보센터 통역안내
15 **한선경** 지혜센터 WCL, GBT
16 **허윤진** SI사업부
17 **이용규** 기획1팀 팀장
18 **이일하** 공공문화센터 도시공간
19 **김홍길** 소기업발전소
20 **권기웅** 뿌리센터 자치재정연구소
21 **심지영** 기획3팀
22 **김두선** 대안센터 해피시니어
23 **김신형** 사회창안센터 전문위원
24 **정재도** 사회창안센터
25 **전우석** 뿌리센터 농촌희망본부
26 **안 선** 뿌리센터 주민참여클리닉
27 **곽현지** 뿌리센터 주민참여클리닉
28 **김진수** 콘텐츠팀
29 **김도홍** 지역홍보센터 투자상담
30 **이명희** 지역홍보센터 콘텐츠팀장
31 **김해창** 부소장
32 **이태규** 사무국장
33 **박수경** 사무국 회원
34 **백현주** 공공문화센터 팀장
35 **류남희** 웹운영
36 **안정미** 웹운영
37 **김성래** SI사업부
38 **최희천** 대안센터 재난관리
39 **김이승현** 사회창안센터 팀장
40 **박민선** 지역홍보센터 지역자료실
41 **홍 선** 기획1팀
42 **석진규** 사무국 총무, 차량지원
43 **문승희** 기획1팀
44 **김미경** 뿌리센터 조례연구소
45 **이영미** 희망아카데미
46 **남경아** 대안센터 해피시니어 팀장
47 **이재경** 대안센터 해피시니어
48 **송정아** 공공문화센터 간판문화
49 **이미연** 공공문화센터 간판문화
50 **이수빈** 공공문화센터 센터장
51 **림혜영** 지혜센터 코리언디아스포라
52 **김연희** 기획2팀 팀장
53 **장진화** 콘텐츠팀
54 **박원순** 상임이사
55 **최석순** SI사업부
56 **민현철** 웹운영
57 **강현선** 대안센터 희망찾기
58 **김미란** 희망아카데미 팀장
59 **김슬아** 사회창안센터
60 **김 석** 웹운영 팀장
61 **임순영** 희망아카데미 연구위원
62 **배성운** SI사업부 팀장
63 **원기준** 지역홍보센터 센터장
64 **유정하** 사무국 총무
65 **김신미** 공공문화센터 간판문화
66 **윤석인** 부소장
67 **김경환** 콘텐츠팀 연구위원
68 **이용신** 뿌리센터 지역연구
69 **김지영** SI사업부
70 **권상훈** 기획3팀
71 **양진주** 사무국 교육
72 **박수현** 지혜센터
73 **설도심** 웹운영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부 서	이 름
이사장	김창국
상임이사	박원순
부소장	윤석인
부소장	김해창
비상임/부소장	정건화
비상임/부소장	김재현
비상임/고문	김광웅
비상임/고문	박경호
비상임/고문	최상용
비상임/객원	유시주
사무국/국장	이태규
파견(풀무원)	정성원
지원	박은주
총무	유정하
교육	양진주
회원	박수경
총무, 차량지원	석진규
회계	오여주
전문위원	최문성
사회창안센터/팀장	김이승현
전문위원	김신형
연구원	김이혜연
연구원	이경희
연구원	정재도
연구원	김슬아
뿌리센터/센터장	김달수
지역연구	이용신
농촌희망본부	전우석
조례연구소	김미경
주민참여클리닉	곽현지
주민참여클리닉	안 선
자치재정연구소	권기웅
희망아카데미/팀장	김미란
연구위원	임순영
연구원	이영미
연구원	김현미
연구원	강가람
공공문화센터/센터장	이수빈
팀장	백현주
연구원	김신미
연구원	이미연
연구원	이일하
연구원	송정아
간판문화연구소/소장	최 범
대안센터/연구위원	위평량
해피시니어/팀장	남경아
해피시니어/선임연구원	김두선
해피시니어	이재경
해피시니어	이재흥
희망찾기	강현선
재난관리	최희전
지혜창고/아카이브	박수현
디아스포라	림혜영
세계도시라이브러리	한선경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정기연
콘텐츠팀/연구위원	김경환
팀장	한순웅
아트디렉터	김진수
아트디렉터/위촉	박성진
아트디렉터/위촉	이지숙
동영상	장진화
소기업발전소/팀장	박상유
연구원	김홍길
연구원	이현수
기획1팀/팀장	이용규
연구원	강현철
연구원	홍 선
연구원	김준호
연구원	조종희
위촉연구원	문승희
객원(완주군)	박병윤
기획2팀/팀장	김연희
연구원	이성은
연구원	황명화
기획3팀/연구원	심지영
위촉연구원	권상훈
웹운영/팀장	김 석
연구원	민현철
연구원	설도심
연구원	김재현
연구원	안정미
연구원	류남희
SI사업부/팀장	배성운
연구원	김지영
연구원	김성래
연구원	허윤진
연구원	이용석
연구원	이경해
연구원	이진주
연구원	최석순
지역홍보센터/센터장	원기준
총괄운영팀장	이명희
콘텐츠팀장	김명진
투자상담	김도홍
전시기획	송추향
지역자료실	박민선
통역안내	박수지
매장매니저	김정구
판매장,회계	송경희
전산운영	이근행
관광안내	이선화
일본희망제작소/이사장	하야시 야스요시
사무국장	깃카와 준코
선임연구원	강내영
위촉연구원	한연미

2007 희망이야기 **ANNUAL REPORT 2007** The Hope Institute

발행일 2008년 3월 27일 | **발행인** 김창국 | **편집인** 박원순 | **기 획** 희망제작소 콘텐츠팀 | **디자인** 화소
사진 김용호 김선규 박진희 | **글** 이현구 | **일러스트** www.munge.co.kr | **후 원** 미래에셋 현대자동차(주) 대한주택공사

이 책자는 콩기름잉크로 인쇄하였으며, 표지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ECF 마크 PCF 마크 재생지 마크

함께 움직이는 세상

MOVE for 「사랑의 한솥밥」

사랑의 쌀을 나르고 계신 택시기사 권태순, 강호영, 김병수씨와 김갑단 할머니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랑의 쌀 나눔 택시봉사대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이신 택시기사 권태순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없는 장거리 운행을 나섭니다.
생각이 같은 회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사랑이 담긴 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오는 길, 미터기 숫자는 0이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현대자동차는 응원합니다.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

HYUNDAI
Drive your way™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www.makehope.org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4층
Tel. 02_3210_0909 Fax. 02_3210_0126